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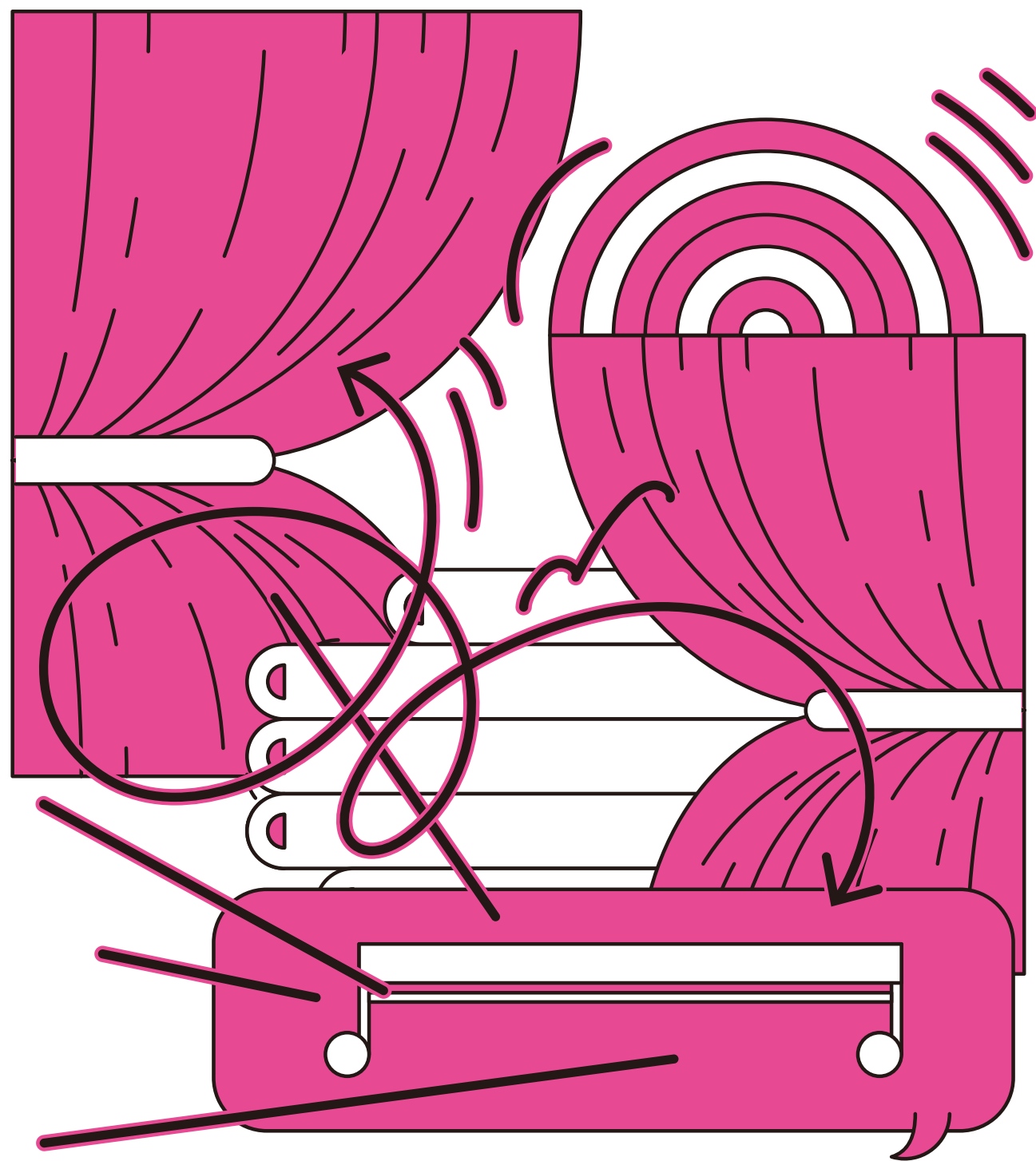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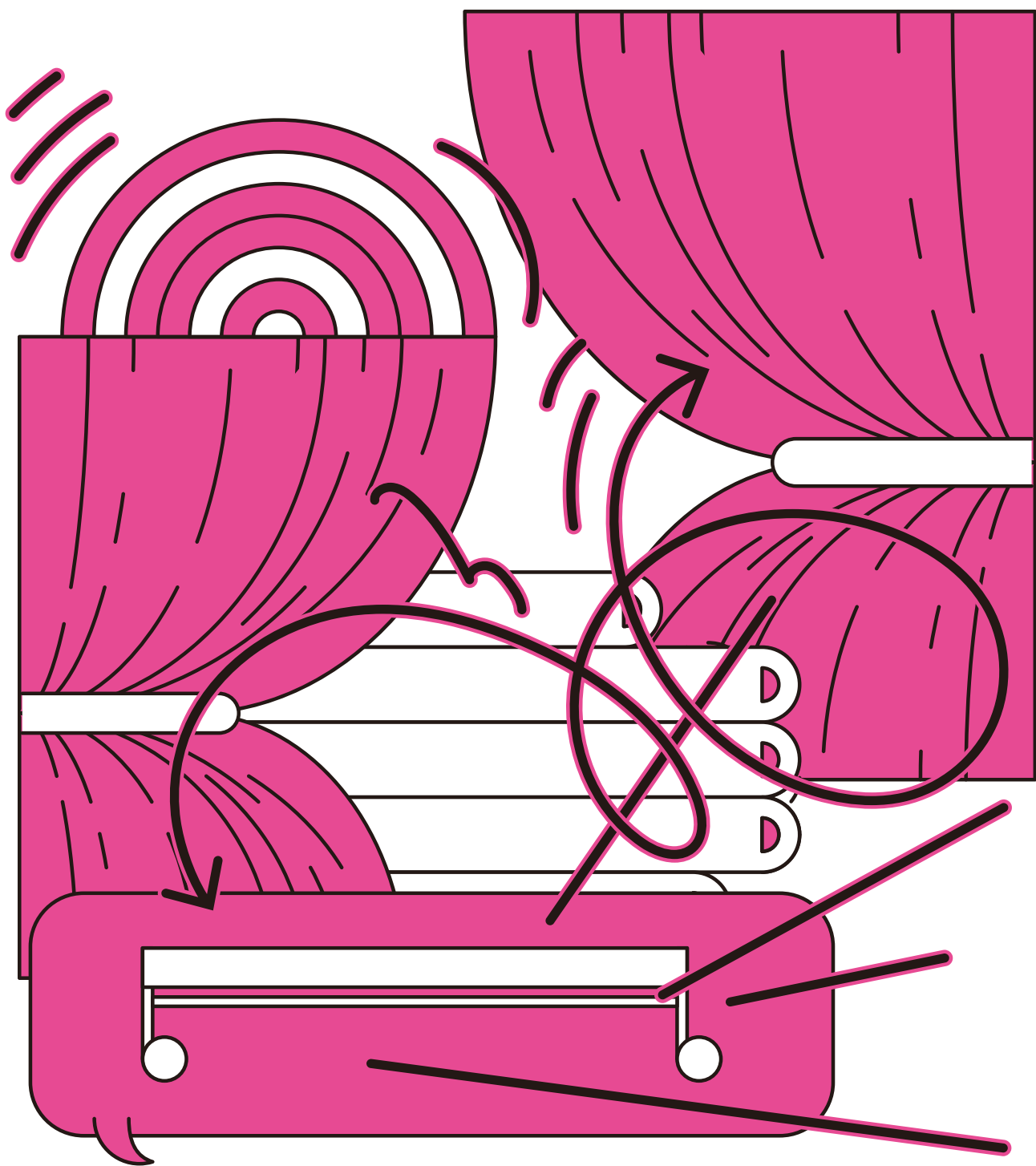
9 791199 117853
ISBN 979-11-991178-5-3
ISBN 979-11-991178-4-6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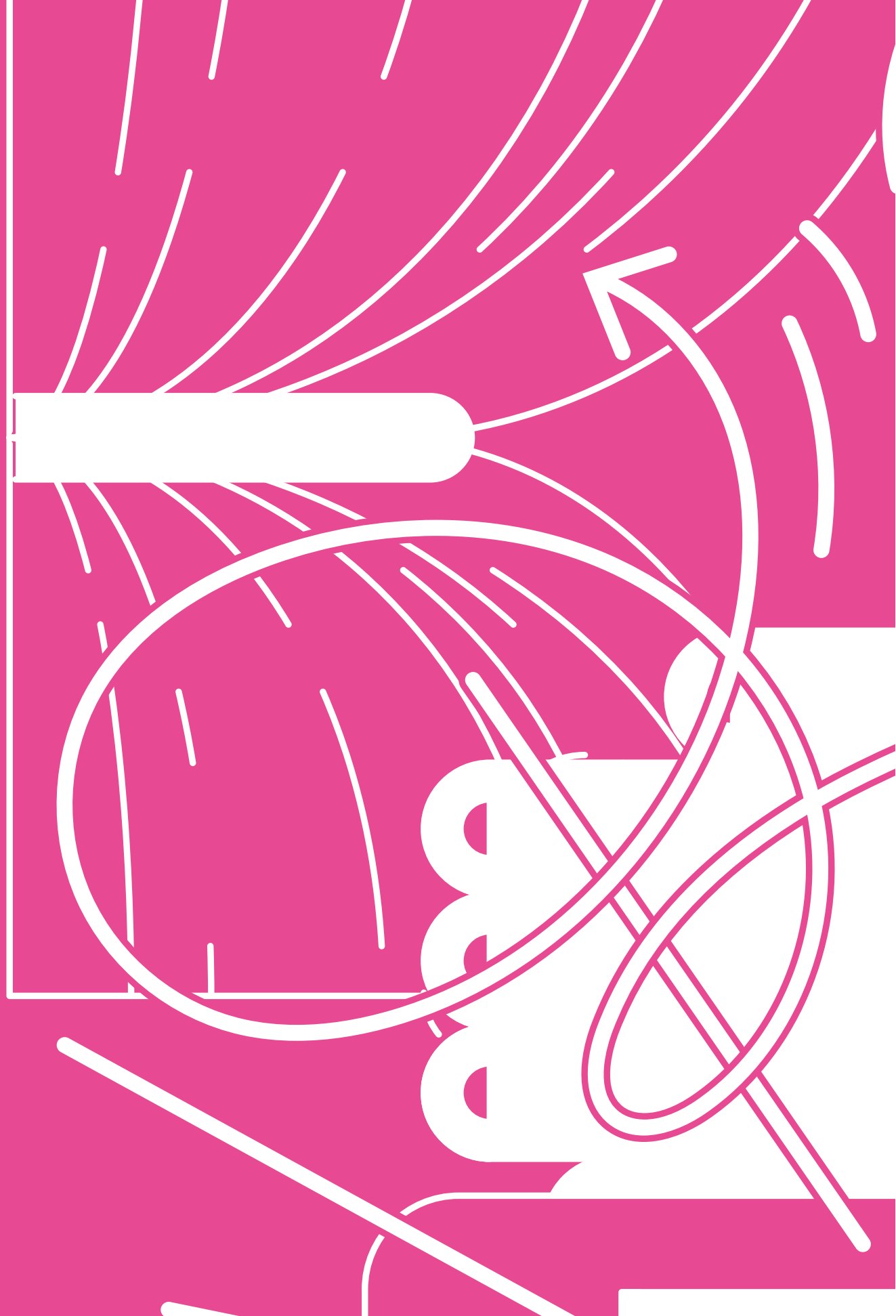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 창작자과정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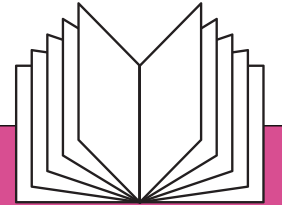
ac.ieum.or.kr
창작자과정





결과 자료집

목차



- 4 아: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 5 창작자 과정 소개

1. 모두의 과정

- 1) 장애예술 주제 강의
- 8 ① 장애아티스트 리얼타임 토크쇼 - 진짜, 우리 이야기
- 2) 장애예술 해외 사례
- 16 ① Artist in Focus 해외예술가 초청시리즈

2. 창작자 LAB

2-1. 감각 LAB

- 1) 매체확장
- 24 ① [글쓰기] 나의 관점으로 고전 다시쓰기
- 30 ② [움직임] 되기, 기억하기, 함께 움직이기
- 36 ③ [시각예술] 기술에 앞서 예술 - 기술 접근성을 위한 리서치
- 41 ④ [사운드] 그물코 알아채기 - 어떤 소리든 그것은 음악
- 2) 창조적 접근성
- 46 ① 낭독의 재구성 - 수어번역 학습연구모임
- 51 ② 모두의 창작 워크숍 - 여기쯤

2-2. 비평 LAB

- 1) 비평입문
- 56 ① 장애예술 비평 세미나
- 2) 비평실습
- 61 ① 장애예술 연극 비평 워크숍

2-3. 로컬 LAB

- 1) 매체확장
- 68 ① [시각] 서로가 서로의 매체되기 in 광주
- 72 ② [연극] 감각과 초월 in 부산

3. 프로젝트 LAB

- 1) 해외 협력
- 77 ① (미국)브로큰박스 마임씨어터 - 움직임의 서사 : 비언어적 연극 만들기
- 82 ② (프랑스)극단 카탈리즈 - 창작 워크숍 : 새로운 정부
- 2) 장애 · 비장애 공동창작 프로젝트
- 87 ① VV 수어 스토리텔링 공동창작 워크숍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장애예술인의 고유한 예술적 감수성과 창작 역량강화 및 장애예술 매개자와 접근성 전문인력 양성 등 장애예술 기반 확대를 위해 (비)장애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자, 장애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는 교육목적과 참여대상에 따라 창작자 과정, 전문예술교육 과정, 매개자 과정 총 3개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작자 과정

장애예술인 대상 다양한 실험과 탐색, 공동창작 등 감각과 협업 기반 예술 교육 과정

전문예술교육 과정

신진장애예술인 대상 예술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 기반의 체계적인 장르별 예술교육 과정

매개자 과정

장애예술 창작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예술 기획, 교육, 접근성 관련 매개인력 양성 과정

창작자 과정 소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감각 기반의 실험과 탐색, 공동창작을 중심으로 한 예술 교육과정으로, 장애예술의 동시대적 관점을 바탕으로 개인의 고유성과 타자와의 관계성을 함께 다루는 창작 경험을 제공합니다.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하는 공동창작 프로젝트와 매체·주제 확장 워크숍, 자기주도적 창작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창작 도구와 방법론을 실험하며 작업을 발전시키고, 창작 전반에 필요한 감각적 인식과 협업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모두의 과정

현대예술의 동시대적 흐름과 장애예술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 장애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현장과의 접점을 탐색하는 강의와 토크 프로그램

감각 LAB

창작의 매체를 확장하여 예술 표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접근성을 창작 언어로 풀어보는 매체 확장 워크숍과 창조적 접근성 워크숍

비평 LAB

장애예술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토론하며 창작자의 비평적 관점을 기르고, 장애예술 담론을 확장하는 세미나와 워크숍

로컬 LAB

지역 창작자 간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장애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워크숍

프로젝트 LAB

장애예술의 동시대적 관점을 바탕으로 협업과 자기주도적 창작을 실험하며, 공동창작 프로젝트와 해외교류 프로그램

전체일정

모두의 과정

장애아티스트 리얼타임 토크쇼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rtist in Focus : 해외예술가 초청시리즈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창작 LAB

감각 LAB

(매체확장: 글쓰기) 나의 관점으로 고전 다시쓰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체확장: 움직임) 되기, 기억하기, 함께 움직이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체확장: 시각예술) 기술에 앞서 예술 - 기술 접근성을 위한 리서치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체확장: 사운드) 그물코 알아채기 - 어떤 소리든 그것은 음악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창조적 접근성) 낭독의 재구성 - 수어번역 학습연구모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창조적 접근성) 모두의 창작 워크숍 - 여기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평 LAB

(비평입문) 장애예술 비평 세미나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평실습) 장애예술 연극 비평워크숍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로컬 LAB

(매체확장: 시각) 서로가 서로의 매체되기 in 광주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체확장: 연극) 감각과 초월 in 부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젝트 LAB

해외교류

(미국) 브로큰박스 마임씨어터 - 움직임의 서사 : 비언어적 연극 만들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랑스) 극단 카탈리즈 - 창작워크숍 : 새로운 정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비장애 공동창작

VV 수어 스토리텔링 공동창작 워크숍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장애아티스트 리얼타임 토크쇼 - 진짜, 우리 이야기」

과정소개

진행: 이창훈
강연: 김환, 방랑토끼, 신강수, 이성수, 임채섭, 조우리
대상: 예술로 삶을 표현하고 싶은 장애예술 창작자, 장애와 예술의 접점에 관심 있는 기획자·교육자·행정가, 창작의 과정을 함께 고민하는 동료 예술가와 활동가, 장애 너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관객
일정: 2025년 7월 25일(금), 8월 22일(금), 9월 26일(금) *총 6회차
장소: KT&G 상상플래닛

자칫 장애라는 단어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 예술가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토크쇼로, 장애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 과정과 삶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눈다. 무대 뒤에 숨은 노력과 작품에 담긴 진심, 그리고 예술가로 살아가는 일상의 생생한 이야기는, 장애를 '극복'의 서사로 가두지 않고, '지금, 여기'의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다양한 목소리로서 확장되어 들려온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의 동시대적 의미를 탐색하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함께 나누는 공감을 끌어내고자 한다.

진행 | 이창훈

이창훈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로, 5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KBS 뉴스 진행자로 데뷔하며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어린 시절 시력을 잃었지만, 점자와 음성 기술을 활용해 학업과 방송 활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왔다. 이후 KBS를 비롯해 복지TV, KTV 등에서 뉴스와 토크쇼 진행을 맡았으며, 현재도 라디오와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애를 한계가 아닌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며,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꿈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강연자 1편

김환

김환 작가는 선천성 뇌 병변 장애를 지닌 시각예술가로, '관계'와 '인식'을 중심으로 시각 너머의 세계를 탐구한다. 그의 회화 작업은 우리가 무심히 '본다'고 여기는 행위와 실제로 '본다는 것'의 간극을 드러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시선을 회화적 언어로 표현한다. 김환 작가는 예술을 통해 사회적 시선과 차이를 사유하고, 보는 것 이상의 감각과 인식의 확장을 제안해왔다.

방랑토끼(박근용)

방랑토끼라는 필명으로 익숙한 박근용 작가는 카툰 특유의 간결함과 기발한 발상을 추구하는 웹툰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그의 작품은 어린 독자들에게 순수한 상상력과 감성적 위로를 전한다. 연재작 『내 마음의 그림수첩』을 통해 소박한 손맛과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는 따뜻한 정서의 카툰 세계를 선보였으며, 출간작 『레인북』(2008)은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했으며, 일본 돗토리 국제만화대회 특별상 등 국내외에서 그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강연자 2편

신강수

신강수 작가는 저신장 장애가 있는 공연예술가로, 연극·스탠드업 코미디·창작 희곡 등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만들어왔다. 극단 '다빈나오'와 '보편적 극단'의 단원으로 활동해 왔다. <추락II> (2021), <당선자 없음> (2022), <옥상 위 카우보이> (2022), <코미디 캠프> (2020~) 등 여러 작품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희곡집 『급이 다르다』 (2015), 에세이 『132cm 사용설명서』 (2019), 그림책 『어린 어른』 (2024), 『색을 짓다』 (2024)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에서 배우이자 작가,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서사를 담고 있다.

임채섭

임채섭 작곡가는 시각장애가 있는 작곡가로, 시각을 잃어가는 과정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기술 보조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작곡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감각의 전환을 통해 더 섬세한 음악을 구현하고자 한다. 병원 공연, 장애 인식개선 음원 제작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음악 프로젝트에 주로 참여해 왔다.

강연자 3편

이성수

이성수 배우는 시각장애가 있는 연극인으로, 뮤지컬드라마, 다큐멘터리 연극, 무용·퍼포먼스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으며, 공연 현장에서 접근성 전문가로도 활약 중이다. 그는 시각장애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 위와 객석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며, 장애가 한계가 아닌 새로운 무대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왔다. 현재 '힘빼고컴퍼니'를 이끌며 동료들과 함께 공연예술 안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확장하고, 관객과 진정으로 만나는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조우리

조우리 배우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창작자로, 배우이자 작가, 연출가로서 다양한 역할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당사자의 삶과 예술적 언어를 정교하게 결합해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고자 하며, <틴에이지 덕>(2012)을 비롯해 여러 무장애 공연에 참여해왔다.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2	7.25. 오후 2시~4시	1편 <진짜, 우리 이야기>	- 이창훈 아나운서의 오늘의 이야기 소개 - 김환 작가의 시각으로 읽는 풍경 - 보는 것과 본다는 것 - 방랑토끼 작가의 그림수첩 - 나를 그려가는 시간 - 토크 & Q&A - 함께 이야기해요
3/4	8.22. 오후 3시~5시	2편 <진짜, 우리 이야기>	- 이창훈 아나운서의 오늘의 이야기 소개 - 신강수 배우의 작은 키, 큰 이야기 - 나를 무대로 올리는 법 - 임채섭 작곡가의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마음 - 음악으로 세상과 연결되다 - 토크 & Q&A - 함께 이야기해요
5/6	9.26. 오후 2시~4시	3편 <진짜, 우리 이야기>	- 이창훈 아나운서의 오늘의 이야기 소개 - 이성수 배우의 보이지 않는 무대, 보이는 가능성 - 조우리 배우의 장애를 넘어, 배우로 선다는 것 - 토크 & Q&A - 함께 이야기해요

장애아티스트 리얼타임 토크쇼 <진짜, 우리이야기> 1편



이창훈 아나운서



방랑토끼(박근용) 작가



김환 작가



청중

주요 강연 내용

김 환, <보는 것 너머의 세계 - 시선의 재구성>

- 김 환 작가는 신체적 한계에서 비롯된 감각의 '이상함'을 예술적 언어로 전환해온 초기 작업은 자신의 감정과 현실을 회화적으로 재현하는 데서 출발, 전시 <신체의 지각>(2019)을 계기로 시선은 '나'에서 사회와 타인으로 확장되기 시작함, 그중에서 타인의 사진을 기반으로 상상해 그린 제주공항 작업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대상과 관계 맺는 새로운 실험임

- 전시 <Frame>(2022)에서는 통증으로 작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치 형식을 시도, 창이라는 오브제에 담긴 생존의 기억을 관객과 공유, LED 아트박스, 눈높이를 벗어난 작품 설치, 작가가 실제 사용하는 의자·매트를 전시장에 배치한 구성은 작가의 신체적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실질적 장치가 됨
- 전시 <Don't buy coffee here>(2023)와 <HTH 무인장애예술 편의점>(2024)을 통해 그는 장애예술이 사회공헌·마케팅의 도구로 소비되는 현실, 그리고 '장애'와 '예술'이 특정 목적에 종속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드러냄. 전시장 기능을 멈춘, 각각 카페, 편의점 형태의 갤러리는 장애예술이 놓여 있는 사회적 맥락을 날카롭게 반영함

- 최근의 회화는 직접 경험한 장소가 아니라 SNS·타인의 이미지를 출발점으로 삼아,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질문 아래,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각을 중첩시키는 회화적 실험을 이어가며, 타인을 통해 재인식되는 풍경과 나의 최초 시선 사이의 차이에서 새로운 사유를 발생시키고자 함

- 김 환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보는 것’의 의미를 다시 묻고, 관계 속에서 확장되는 시각의 가능성을 탐구함

방랑토끼, <그림으로 건네는 위로 - 방랑하는 마음의 이야기>

- 그림의 의미: “그림이 누구에게 닿을까”를 여전히 고민하고, ‘장애 예술가’라는 이름이 작품보다 앞에 놓일 때의 두려움도 있지만, “완벽한 그림보다, 누군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조용히 건드릴 수 있는 한 컷”을 그리고자 함. 그에게 그림은 삶의 언어이자,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임

- 공모전이라는 소통의 창구: 2005년 공모전을 계기로 연재를 시작한 박근용 작가는 처음 공모전에 임할 때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모전이 “누군가 내 그림을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통로”이자 작품을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임을 깨닫게 됨

- 세 개의 그림 이야기

- 얼음 위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펭귄 그림: 겉보기엔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아래 거대한 빙하처럼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배려의 층위를 은유
- 고양이와 빛을 비추며 쥐를 인도하는 그림: 누군가의 작은 배려 덕분에 다시 나아갈 힘을 얻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그림
- ‘고양이 에펠탑’: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삶의 모험을 상징하며, 조심스럽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이 투영



임채섭 작곡가



청중

주요 강연 내용

신강수, <작은 키, 큰 이야기 - 나를 무대로 올리는 법>

- “예술은 내가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언어”
- 자신의 장애를 작업의 재료로 활용하기
 - <작은 어른의 고백>은 저신장 장애인으로서 겪어온 일상의 감정과 사회적 시선, 성장의 순간을 유머와 진솔함으로 풀어낸 작품임
 - 그림책과 에세이 작업은 무대 밖에서 또 다른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적 확장의 장
- 장애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과 미학적 의미: <날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2025)에서는 “저신장 장애 배우에게 간첩으로 몰린 재일동포 오수 역할을 맡긴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됨, 이러한 질문은 예술계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장애 배우가 창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상징을 떠안게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듦
- 장애를 드러내되 그것에 갇히지 않는 예술적 태도를 강조함 (“나의 장애는 내 예술의 하나다. 하지만 예술의 전부는 아니다.”)

임채섭,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마음 - 음악으로 세상과 연결되다>

- 음악은 세상을 다시 느끼게 해준 유일한 언어
 - 중학교 시절 교사의 부당한 체벌로 왼쪽 눈을 실명하고, 이내 오른쪽 눈까지 희소병 진단을 받으며 시야가 점점 좁아짐
 - 한동안 방에서만 지내며 삶을 포기하려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고, 피아노를 더듬어 연주하면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함
- 두 번째 위기와 디스폰스튜디오와의 인연
 - 시력이 악화되어 창작 중단의 상황에서 ‘따뜻한동행’의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다시 음악을 시작, 보이스오버, 확대 독서기를 활용함
 - 디스폰스튜디오: ‘디스폰’은 작은 감성 한 스푼이 모여 큰 음악이 된다’는 의미로, 그에게 장애를 중심에 두지 않는 창작 공동체이자 동등한 예술적 파트너가 됨, 팀과 함께 자작곡을 만들고, 피아노, 보컬, 기타, 드럼,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와 협연하고 직접 노래하며 그의 삶의 장면들을 음악으로 번역해 전달함
- 음악은 상실을 넘어 새로운 감각으로 세상을 듣는 방식임

장애아티스트 리얼타임 토크쇼 <진짜, 우리이야기> 2편



함께 이야기 해요



신강수 작가

- 앞으로의 포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을 만들어라!”라는 생전 아버지의 말에서 비롯된 바람으로, 음악을 꿈꾸지만 환경적 제약으로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장비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장애아티스트 리얼타임 토크쇼 <진짜, 우리이야기> 3편



청중



함께 이야기해요

주요 강연 내용

이성수, <보이지 않는 무대, 보이는 가능성>

- ‘접근성 예술’: 접근성이 단순히 소수자를 위해 마련된 ‘보조적 장치’가 아니라, 접근성 자체가 예술이 되어야 함. 무대 언어가 바뀌고, 관객의 감각이 확장되며, 예술의 구조가 달라지는 과정 모두가 창작의 일부임
- 접근성은 경청의 태도가 중요함: 접근성은 다수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데서 시작되는 창작의 기반이자 ‘태도’의 문제로, 공연장, 제도,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의견이 충돌하는 순간에도 상대방에 ‘경청’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동성, 감각, 경험이 다르더라도, 예술은 결국 그 차이를 만나는 자리임
- 당사자성에서 비롯된 창작과 환경: 특정 장르나 역할로 장애예술을 고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무대를, 또한 당사자가 직접 중심이 되는 창작 환경을 만들고자 함
-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이야기: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한 서사가 연극을 통해 사회적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삶, 안마사의 노동과 정체성, 가까이 있으나 배제되어 온 사람들의 서사 모두 그가 “해야만 하는 이야기”이자 예술가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임

조우리, <장애를 넘어, 배우로 선다는 것>

- 장애 운동으로서 예술의 방식: 청주에서 장애 운동을 하던 시절, 장애 관련 대본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고, 연극이 자신이 추구해온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 또한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면서 예술이 곧 장애운동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대에 서게 됨
- 관계의 공간을 여는 예술의 힘: 공연을 보러 와 뒤에서 펄펄 울어주던 장애인 콜택시 기사, 블로그 이벤트를 통해 인연이 닿아 꾸준히 공연 소식을 챙겨주는 관객으로 동명이인 ‘조우리’, 그리고 첫 공연 때 가장 앞줄에서 응원을 보내고 지금도 후원금을 보내주는 모교 교수는 자신의 예술을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됨

- 경계를 넘는 장애예술: 그는 또한 장애 예술이 경계를 넘어서는 예술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휠체어를 이용한 몸의 움직임이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며, 작곡가, 피아니스트, 미술감독, 배우, 영상감독 등 다양한 협업자와의 관계는 그에게 예술이 곧 살아 있는 경험임을 확인시켜주며 경계를 넘어서 수 있게 함

- 열린 예술을 향한 여정: 장애 예술인으로서 언제쯤이면 원하는 공연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지, 형식적 참여가 아닌 주체적 창작이 가능할지 물으며, 열린 예술을 향해 계속 도전하고 있음

「Artist in Focus 해외예술가 초청 시리즈」

과정소개

진행: 페아트로 시에고(Teatro Ciego) 극단, 에르완 시프라(Erwan Cifra), 리셀 테렛(Liselle Terret)
대상: 동시대 장애예술의 국제적 흐름과 실천에 관심 있는 장애예술인, 해외 장애예술 사례를 통해 자신의 작업과 예술적 관점을 확장하고자 하는 예술인, 장애예술의 창작·기획·교육·연구·행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 현장 관계자
일정: 2025년 10/29(수), 11/5(수), 11/12(수) *총 3회차
장소: 온라인 줌 강연 (사전녹화영상 + 실시간 질의응답)

세계 장애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예술단체를 온라인 강연으로 초청해 각자의 창작 방식과 예술적 관점을 소개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어둠 속에서 감각을 확장하는 공연, 시각언어 기반의 수어문학 실험, 신경다양성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장애예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확인했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사례 공유를 넘어, 장애예술의 창작적 가능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으로 운영했다. 참여자들은 국제적 흐름을 접하며 장애예술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진행 | 페아트로 시에고 극단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한 페아트로 시에고 극단은 '완전한 어둠 속 공연'이라는 독창적인 형식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 빛을 완전히 차단한 무대에서 관객은 청각·촉각·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며, 동등한 조건에서 배우와 관객이 만남으로써 예술이 가진 포용과 평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진행 | 에르완 시프라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각장애 예술가이자 비주얼 버내쿨러(VV) 퍼포머, 연출가 에르완 시프라는 수어문학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오며, "누가 수화를 죽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왔다. VV라는 독창적 표현 방식에서 수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시와 몸짓, 연극이 결합된 하나의 예술 언어로 확장된다. 이번 강연에서는 그가 구축해 온 VV의 세계관과 무대 언어의 깊이를 함께 살펴본다.

진행 | 리셀 테렛

영국 이스트런던대학교 공연학 부교수인 리셀 테렛은 학습장애 및 신경다양성을 지닌 배우들과 함께 전복적 카바레 연극 〈Not F**kin Sorry〉(NFS)를 선보여 왔다. 이 작품은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던 존재의 목소리를 무대 위로 불러내어 강렬한 자기표현의 장을 열며, 관객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강연에서는 배우들이 '침묵의 규범'을 깨고 자신들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며 관객과 권력의 관계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창작 과정 전반을 소개한다.

회차	일시	강연자(단체)	과정 내용
1	10.29. 오후 7시~8시 30분	페아트로 시에고 극단	- 페아트로 시에고 극단의 탄생과 예술적 특징 - 포용과 협업이 만들어낸 극장의 구조 - 조직·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확장 - 코로나19 이후의 전환과 관객 반응
2	11.5. 오후 7시~8시 30분	에르완 시프라	- 농인 예술가 에르완 시프라의 여정 - VV에 대한 예술적 철학 - 교육자·코치로서의 VV 워크숍 - 대표 작품과 국제적 활동 - VV의 미래와 교육에 대한 비전
3	9.26. 오후 2시~4시	리셀 테렛	- 작품 소개 및 창작 배경 - 창작 철학: '침묵의 규범'과 '연루된 주체' 개념 - 리허설과 창작 방식: 권력 구조를 전복하는 연습 - 공연 구성: 참여형 카바레와 동정 프레임 전복 - 리허설 현장: 신뢰·돌봄·책임의 구조

주요 강연 내용

1회차: 아르헨티나_페아트로 시에고 극단

강연자:

마르틴 본도네(공동 창립 멤버, 이사/전략 확장 담당)

파쿤도 보가린(예술감독, 시각장애인 배우)

아구스티나 세드라치(협력 프로듀서·교육 매니저)

페아트로 시에고 극단의 탄생과 예술적 특징

- 페아트로 시에고 극단: 2001년 아르헨티나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활동하던 아마추어 시각장애인 배우들이 함께 만든 실험적 연극 프로젝트에서 출발, 200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세계 최초의 '완전한 어둠 속 공연' 전용 극장으로 자리 잡음

- 모든 공연은 완전한 암전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관객은 40명 안팎의 소규모로 입장해 향기, 바람, 촉각,

360도 공간 음향 등으로 구성된 다감각적 연출을 통해 이야기를 경험함

- 관객은 자신의 상상으로 장면을 완성하며 참여자이자 공동 창작자가 되는 독특한 몰입을 체험함
- ‘보지 않음’이 세계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예술적 가능성을 통해, 시각 중심으로 설계된 동시대 문화 환경에 질문을 던짐

포용과 협업이 만들어낸 극장의 구조

- 포용적 구조: 시각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 팀을 이루어 활동, 장애와 비장애가 서로의 세계로 초대되는 양방향 포용이 극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형성함
- 시각장애인 배우들은 익숙한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감각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전문 예술가로 성장(현재 예술감독 파콘도 보가린 역시 처음에는 시각장애인 배우로 합류), 비장애인 배우들은 어둠 속에서의 긴 훈련을 거쳐 시각장애인의 세계를 몸으로 이해함
- ‘감각 연출’의 언어: 각 장면마다 고유의 향기와 촉각, 다층적 사운드를 설계하며, 이 과정에서 조향 연구소, 음향 엔지니어 등 다수의 전문가와 협업 진행함

조직·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확장

- 공연 부문: 어둠 속 미식 공연, 라이브 음악극, 아동극 등 서로 다른 콘셉트의 작품을 장기 상연하며, 부에 노스아이레스 관객들의 높은 문화 소비와 소규모 좌석 운영을 바탕으로 연중 상시 공연 체계를 유지함
- 감각 마케팅·기업 교육 부문: 구글·코카콜라·맥도날드·페이스북 등 국제적 기업과 협력해 제품 런칭 이벤트, 어둠 속 팀빌딩 워크숍 진행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아 극단의 자립 기반 구축함
- 교육 프로그램 부문: 학교 대상 공연, 교실을 암전 상태의 감각 체험 공간으로 전환하는 ‘센소테카(Sensoteca)’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눈가리개와 몰입형 오디오, 향기·소품을 활용해 이야기를 경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해당 모델은 뉴욕의 자매 회사 ‘피치 블랙(Pitch Black Immersive Experience)’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현지 문화와 교육 환경에 맞게 재구성됨
- 기술 부문: 초기의 단순한 음향 장비에서 출발, 돌비 애트모스, 바이노럴 사운드, 인공지능 기반 사운드 디자인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발전. 특히 AI 전담팀을 두고, 현장 녹음 없이 필요한 소리를 스튜디오에서 구현하거나 목소리와 언어를 변환해 다양한 버전의 공연을 제작하는 등 기술을 예술적 경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 자동화와 디지털 콘텐츠가 확산될수록, 실제 향기와 촉감, 라이브 퍼포먼스를 결합한 아날로그 감각 경험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함

코로나19 이후의 전환과 관객 반응

‘감각 상자(Experience Box)’: 코로나19, 모든 오프라인 공연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개발한 비대면 형태의 새로운 포맷으로, 상자 안에는 몰입형 오디오 코드와 향기·소품이 담겨 있어, 관객은 자신의 집에서 눈을 가리고 감각 여행을 떠나는 방식. 이후 ‘원격 감각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특정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야기와 감각 키트를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들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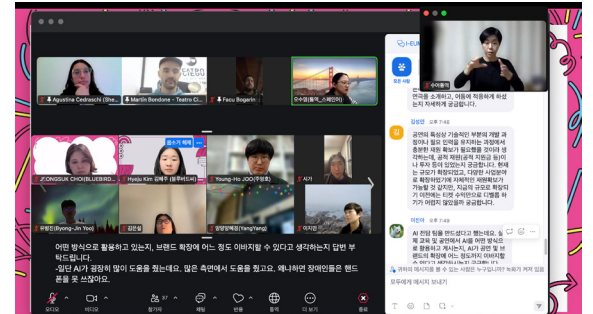
주요 질의응답

비장애인 관객들은 공연에 대해 “경이롭다.”, “마술 같다.”, “전혀 다른 세계를 다녀온 것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어둠과 다른 감각에 대한 새로움을 주로 전한다면, 시각장애인 가족을 둔 관객의 경우, “이 경험을 더 일찍 알았다면 가족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소감과 같이, 포용에 대한 가능성

을 시사함. 이를 통해 해당 공연이 가진 예술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장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테아트로 시에고 강연 영상



실시간 질의응답 화면

주요 강연 내용

2회차: 프랑스_에르완 시프라

농인 예술가 에르완 시프라의 여정

- 에르완 시프라는 자신을 “테크놀로지를 사랑하는 농인 수어예술가”로 소개하며, 어린 시절부터 게임·영화·만화 등 시각적 매체에 대한 강한 흥미를 갖고, 직접 영상을 제작·편집하고 싶다는 꿈을 꾸며, 실제로 영상 제작과 웹·그래픽 디자인을 수행하는 회사를 설립해 약 5년간 운영·15년 동안 프랑스 수어를 청인들에게 가르치며 수어의 문법 구조와 분류사, 시각적 표현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수어 표현을 풍부하게 만드는 분류사에 매료, 이를 VV 작업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음

- 이후 40년간 수어 교사이자 연극인으로 활동해온 시몬 아티아를 만나 그의 후임으로 VV 교육을 이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년간 함께 워크숍과 연구를 진행하며 VV 전문가로 성장. 이에 대해 에르완은 “테크놀로지, 수어 교육, VV 연구가 서로 결합되면서 자신만의 예술 언어가 형성되었다.”라고 평함

VV에 대한 예술적 철학

- VV를 “농인사회가 만들어낸, 농인만의 고유한 예술 장르”로 규정. 노래나 시처럼 농·청인 사회 모두에 존재하는 예술과 달리, VV는 농인 문화 안에서 탄생했고 농인의 시각 언어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형식
- VV는 수어와 마임이 결합된 무대 예술로, 수어를 농인의 모어이자 구조로 삼고, 얼굴 표정과 전신 움직임을 통해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으로, VV가 농인에게는 수어를 통해 온전히 전달되며, 청인에게는 마임과 같은 시각적 단서로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줌
- 여러 나라 농인들이 서로 다른 수어를 사용하더라도, 시각적 감각과 지각 능력을 통해 VV를 충분히 공감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는 농인 예술”의 가능성을 가짐
- 언어로서의 수어와 예술로서의 VV는 역할과 성격이 달라, “수어를 잘한다고 해서 곧바로 VV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VV에는 별도의 예술 감각과 훈련이 필요함

교육자·코치로서의 VV 워크숍

- 에르완은 공연자, 강의자, 코치이자 작품 감수자로서 세 역할을 병행하며, VV 워크숍을 입문·심화·무대발표로 이어지는 세 단계로 구성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해옴. 레벨 1에서는 VV 개념과 기본 기술을 익히고, 레벨 2에서는 어려운 내용을 유창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진행하며, 레벨 3에서는 실제 무대에 서겠다는 결심을 돕는 동기부여와 작품 완성을 목표로 진행함
- 워크숍과 별도로 1~2일짜리 기초 체험 과정도 운영, VV를 처음 접하는 참가자들도 참여 가능
- VV는 반드시 수어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VV를 통해 기존의 수어보다 더 풍부하고 복잡한 언어 구사가 가능해짐. 그 사례로, 수어통역사 교육 과정에서 VV 기법을 활용해 의료 현장 등에서 복잡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설명, 수어 교사가 VV로써 생생하게 수어를 교육하거나 농 어린이들의 표현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등이 있음

대표 작품과 국제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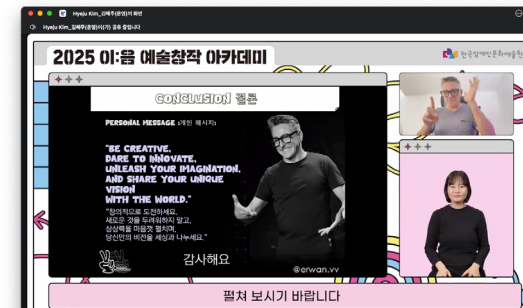
- 에르완은 2019년 러시아 국제 연극제에서,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연기를 겸한 1인극 〈2080〉으로 최우수극본상과 최우수 주연상을 동시에 받았는데, 이때 수어를 중심으로 한 VV 기법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었음
- 팬데믹 시기에는 3주간 온라인 VV 세미나를 열어 전 세계 100명의 참가자와 함께 토론과 실험을 진행, 이후 중국과 연결한 미니 페스티벌을 통해 온라인 VV 공연과 성인 전용 심야 세션 등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포맷을 개발함
- 여러 명의 VV 공연을 30분으로 엮는 실험 프로젝트 「씨즈(Seeds)」를 통해, 개별 5분 작품을 모아 긴 러닝타임의 공연으로 확장하며 그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체험, 이 과정에서 주제의 통일성과 구성의 밀도가 중요하다는 교훈과 함께, 장편 VV 공연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

VV의 미래와 교육에 대한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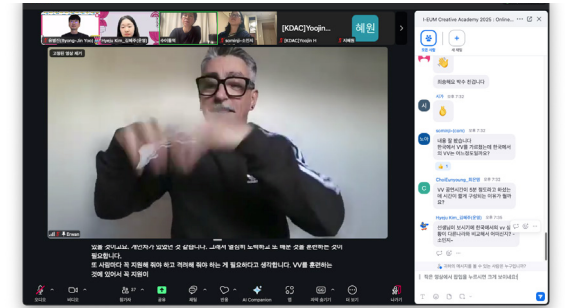
- 향후, 기존의 농인 관객 위주에서 나아가, 청인 관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연구가 필요.
- 단기 워크숍 대신, 2~3개월의 집중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VV 전문학교 설립 목표, 일정 수의 학생을 선발해 스토리 창작, 장르별 작품 제작, 무대공연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새로운 세대의 VV 예술가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
- 농학교 교육과정 안에 VV를 필수 과목으로 포함해, 농학생들이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VV 창작을 배우고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주요 질의응답

- 주로 짧은 길이로 만들어지는 VV 공연의 경우, 시 문학처럼 짧을 때 집중도가 높아지고, 얼굴과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은 계속 사용하는 특성상 창작자와 관객 모두에게 피로도가 커 5분 내외가 가장 적합한 길이임
- 시각 중심의 농문화 기반 예술인 VV에서 소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청각적 요소가 핵심은 아니지만, 효과음이나 진동이 느껴지는 드럼처럼 표현을 돕는 소리의 범주는 가능함
- 수어·마임·무용과 다른 VV의 고유성은 VV가 수어의 언어 구조를 따르지 않는 독립적 예술 언어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 예술이라는 점에서 무용과 구분되며, 몸짓을 통해 시각적 서사를 만드는 점에서 마임에 좀 더 가까움
- 디지털 확장 계획으로는 창작에 대한 모방의 우려로 인해, 대규모 온라인 공개 대신, 책 제작과 QR 영상 연계 방식을 검토 중으로, 또한 추후 자신의 작업을 영상 아카이브로 공개를 계획 중임.
- VV은 그 개방성과 확장성으로 인해, 특별한 제약보다 새로운 실험의 가능성이 큼



에르완 시프라 강연 영상



실시간 질의응답 화면

주요 강연 내용

3회차: 영국_리셀 테렛

작품 소개 및 창작 배경

- 리셀 테렛이 속한 극단 Not Your Circus Dog Collective는 학습장애·신경다양성을 가진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는 콜렉티브로, 2016년부터 활발히 활동함
- 2024년에는 영국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시간 길이의 카바레 형식의 연극 〈Not F**kin' Sorry〉(이하 NFS)를 제작, 전국 투어와 영상 녹화까지 진행함
- 테렛은 이 작품이 “학습장애인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침묵되는 사회에서 저항의 행위로 기능”하며, 한 평론가의 말을 빌려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투쟁의 함성”이라고 정의함

창작 철학: ‘침묵의 규범’과 ‘연루된 주체’ 개념

- 작품의 중심에는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침묵하는가”라는 질문이 전제됨
- 침묵의 규범(Code of Silence): 본래 경찰 조직의 용어를 전유해, 학습장애인은 종종 불편하거나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주변의 비장애인들에 의해 침묵을 당하는데, 이 침묵의 규범은 예술 창작 공간에도 작동하며, 해당 배우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구조를 만들
- 연루된 주체(Implicated Subject): 미국의 문학연구자 마이클 로스버그(Michael Rothberg)의 개념으로, 우리가 직접 가해를 하지 않아도, 침묵과 무감각을 통해 불의를 재생산하는 데 연루됨. 이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 동정, 보호 뒤에 통제가 숨어 있음을 의미하며, 테렛 자신은 신경다양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교수와 연출가라는 사회적 위치 역시 지니고 있기에 특권과 책임 역시 지니고 있음

리허설과 창작 방식: 권력 구조를 전복하는 연습

- 서포트 워커의 재정의: NFS의 리허설에는 항상 3명 이상의 서포트 워커가 동반. 이들은 일반적인 ‘도움 제공자’가 아니라, 학습장애인 배우가 침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연출가나 예술감독 등 권력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역할을 수행. 서포트 워커는 구조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역할까지 담당했으며, 이를 위해 사전 교육이 필수로 전제됨
- 미안하지 않기 연습: 학습장애 배우들은 오랫동안 ‘미안함’과 ‘위축됨’을 강요받아 옴. 이를 전복하기 위해 배우들은 리허설에서 “사과 금지” 게임, 마이크에 대고 욕 내뱉기, 당당하게 시선 돌리기 등의 훈련을 반복, 배우는 자신의 감정과 힘을 되찾을 수 있었음

- ‘역할’ 개념을 통한 정서적 거리 두기: 배우들은 “더 독스(The Dogs)”라는 집단 캐릭터로 무대에 서게 되는데, 이 역할은 트라우마를 직접 재현할 때 생기는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관객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표현을 가능하게 함. 테렛은 “역할은 배우가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이 살아온 역사를 능동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도구”로 설명함

공연 구성: 참여형 카바레와 동정 프레임 전복

- NFS는 영국 자선방송 〈Children in Need〉의 동정적 장애 서사를 뒤집어 만든 DIY 카바레 형식의 공연으로, 관객은 입장 시 초록색 토큰을 받고, 공연 중 중요한 선택을 요구받음으로 인해, 관객은 수동적 구경꾼이 아니라 행동해야 하는 연루된 주체가 됨. 배우들의 관능적 춤, 유머, 욕설, 시선 맞추기 등을 통해 학습장애인이 일 상에서 직면했던 ‘응시’를 관객에게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관객은 감정적 불편함과 각성을 동시에 경험함

리허설 현장: 신뢰·돌봄·책임의 구조

- 평등한 창작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
- 리허설 공간에서는 상호 책임, 상호 연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배우의 실제 경험을 중심에 두는 공간 설계를 위해, 서포트 워커의 지속적 개입과 함께, 위계 해체를 위한 시각·언어적 장치 등을 적용해, 배우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 창작자로 자리함
- 연극 이론가 아우구스토 보알(Augusto Boal, 1931~2009)의 “연극은 혁명의 리허설이며, 이는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이, NFS는 학습장애·신경다양인 배우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불의를 폭로하고, 예술적 주체로서 관객과 마주한 실천의 장

주요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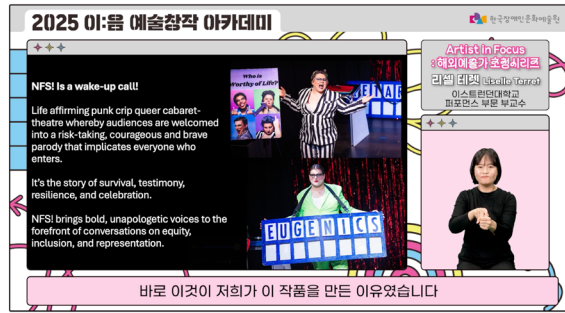
- 창작 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장애·학습장애 당사자의 시선과 언어를 중심에 두는 과정에서 항상 출발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작업은 다양한 집단과 공동 창작의 방식 아래, 정치적 메시지, 정신건강, 젠더 이슈 등을 유머와 카바레적 형식으로 표현

- 대학 교육 커리큘럼은 학습장애 당사자를 위한 직접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보다 포용적인 교육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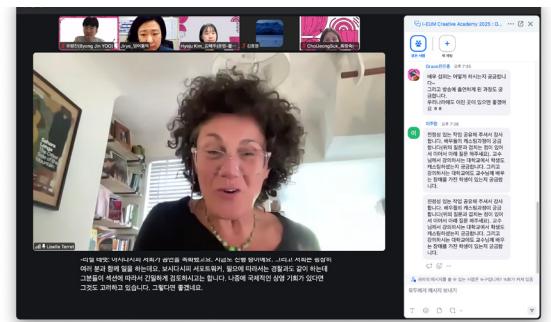
- 트라우마를 다루는 지원 체계로는, 창작 과정에서 당사자의 감정·심리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 훈련을 받은 크리에이티브 서포터 워커가 반드시 배치되고, 리허설에는 명확한 구조와 역할, 상태 점검, 휴식 시간이 포함됨. 이는 치료가 아니라 “안전하게 기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

- 관객과의 관계 설정 방식으로, 제4의 벽을 허무는 방식으로, 관객 입장 전부터 배우가 객석에 숨어 있다가 등장하고, 관객이 배우를 ‘선택’하는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장치를 통해, 관객의 권력과 시선을 뒤집어 장애인이 대상화되는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의 성격을 띠게 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애인이 겪은 직접적 피해, 조력사망 법안 논의, 복지 축소 등 영국 사회 전체의 변화가 최근 공연 안에 자연스럽게 반영됨



리셀 테렛 강연 영상



실시간 질의응답 화면

[글쓰기]

「나의 관점으로 고전 다시쓰기」

※2024년도 연속프로그램

과정소개

진행: 정진새(극단문), 윤서준(보조강사), 박정수(특강강사)

대상: 글쓰기를 매개로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 고전 텍스트를 장애 당사자의 관점에서 다시 쓰거나 재해석해 보고자 하는 사람.

일정: 2025년 6월 25일(수)~8월 6일(수) *총 7회차

장소: 이음센터 커뮤니티2, 이음갤러리

고전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감각을 익히고, '나'를 중심에 둔 서사 실험을 함께 시도해 본다. 신화에서부터 셰익스피어, 비극, 동화, 설화, 우화까지 다양한 고전을 되살펴보고, 고전에 전제된 비장애 중심, 인간 중심, 정상성 중심의 서사에 질문을 던지며, 그 자리에 내가 들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본다.

고전을 '나'의 시선으로 다시 써보는 과정에서, 고전의 명대사를 내 사연으로 고쳐 쓰고, 고전의 주인공을 약당으로 바꾸고, 고전의 메시지를 내 마음대로 재해석한다. 고전의 고집(보편성)과 나의 고통(당사자성)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 고전이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무대 위로 불러 나온다.

진행 | 정진새(극단문)

정진새(본명 정진세)는 극단문의 극작가 겸 연출가이다. 극단문은 드라마 작가를 축으로 배우와 연출가, 디자이너를 초청하여 프로덕션을 꾸리는 컬렉티브형 연극-창작팀이다. 탈현실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언어들을 조합하여 이야기 형식의 연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연례 공공지원을 통해 규모 있는 작업을 하기 보다는, 소규모 형태로 민간/공공의 축제와 극장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극과 생태 드라마에 관심이 많다. 2023~2024 극단문 표어는 “어린이, 동물, 농민, 기계만 탑승 가능”이었다. 2020년도부터 장애인 관객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작품에 배리어프리 회차를 시도하고 있다.

참여자

김송미, 김진옥, 심진우, 원주신, 윤정아, 이기근, 이승규, 이승택, 정유미, 정지상, 조민서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6.25. 오후 2시~5시	고전과 나의 거리 두기	고전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 찾기 - 나는 어떤 이야기에 끌리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가 못마땅한가? - 고전에는 무엇이 빠져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 나의 몸, 나의 상황에 (부)적합한 고전 찾기
2	7.2. 오후 2시~5시	고전 속 권위에 질문하기	성경과 그리스 비극을 나의 관점에서 다시 읽고 쓰기 - '신'적인 존재와 대면 혹은 대적하기 - 비극으로서의 원형: 그리스 비극을 다시쓰기 - 본인 등판 메소드 익히기: 한 장면 속에 내가 출현한다면?
3	7.9. 오후 2시~5시	고전을 다시 읽는 시선	(특강) 장애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전을 해석하고 재구성하기 - 박정수의 『오이디푸스, 장애인 되다』를 경유해, 장애 당사자의 관점에서 고전 다시 읽기, 다시쓰기
4	7.16. 오후 2시~5시	고전 속 인물 바꿔보기	셰익스피어 다시쓰기 - 『로미오와 줄리엣』, 『리어왕』 분석 - 명대사 바꿔치기, 주인공의 상황 바꿔보기 - 고전에서 말하지 못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장면 구성
5	7.23. 오후 2시~5시	고전 다시쓰기 사례 소개	동화와 우화를 현재의 시선과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기 - 창작 판소리 <허생전> 각색 사례: 여성의 노동과 돌봄의 재서사화 - 영화 <작은 아씨들> 분석: 페미니즘적 각색과 자기 서사 - 연극 <신데렐라>, 소설 『성냥팔이 소녀의 반격』 사례 분석 - 장면 쓰기 실습 및 각색 전략 탐색
6	7.30. 오후 2시~5시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쓰기	선택한 고전을 나의 몸과 감각에 맞게 표현하고 재구성하기 - 각색 이론 정리: 주제, 인물, 인칭, 퍼즐 각색 등 - 참가자 초고 발표 및 피드백
7	8.6. 오후 2시~5시	다시 쓴 고전, 함께 나누기	과정 공유회를 통한 장면 발표 및 낭독 - 장면발표, 텍스트 낭독 1인당 10~15분



7주차 과정 공유회, 정진재 강사



7주차 낭독회 전경



낭독 장면. 다섯 명의 배우가 참여자들이 쓴 일곱 편의 희곡마다
다른 역할을 맡아 번갈아 가며 낭독



과정 공유회 이후 단체 사진

주요 강연 내용

고전과 나의 거리 두기

- 고전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고전의 권위에 질문을 던지고, 고전의 틀 속에서 놀기 혹은 틀을 깨기의 방식으로 고전을 다루는 워크숍의 취지 공유함
- 당사자를 나와 타인과 사회를 온전히 겪어낸 경험의 견지에서 바라보고 당사자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한편, 토론이 가능한 문제적 작품으로서 글쓰기 역시 필요함을 이해함
- 고전과 나의 관계, 나의 당사자성, 나와 주변과의 관계성, 나의 특별한 감각과 취약함 등을 공유함

고전을 다시 읽는 시선(특강: 박정수)

- '장애인 오이디푸스': 흔한 질병으로서 만곡증이 있던 당시로부터 유추해 '부은 발'을 뜻하는 '오이디'가 들어 있는 오이디푸스를 장애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리스 비극의 운명론: 불완전한 신탁과 이유 없는 운명에 맞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여 그리스 비극의 운명이 초래됨
- 혐오의 정치: 테베에 도는 역병의 원인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지정하는 <오이디푸스>의 신탁처럼, 불가해한 재난의 원인을 특정 대상에 찾는 과정에서 장애와의 연관성 부각함
- 인간의 정의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질문: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가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이쪽

보행을 하지 않는,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지팡이를 든) 장애인이었기 때문이라는 접근함

- 소수자를 위한 민주주의: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의 추방된 오이디푸스를 돌보는 아테네의 테세우스 왕은 이방인 당사자로서 아테네를 포용과 환대의 국가로 만듦. 실제로 아테네에는 장애인 연금 제도가 있었음
- 가부장제의 이단아 '오이디푸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경유해, 오이디푸스를 가부장제와 부계사회, 국가주의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이탈자로 해석함

고전 속 권위를 질문하고, 인물 바꿔보기

- 성경을 보편적인 문학 작품으로 보고, 시혜적인 시선 아래 장애인과 여타 사회적 약자들을 교정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소수의 시점에서 대안적인 성경 살펴봄
- 성경에 당사자성을 관련지어 질문하고, 성경에 '나'를 등장시켜 다시 씀
- 셰익스피어 고전의 문제점: 백인·남성·이성애·유럽 중심 서사,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기초학문을 위한 교재로 전승되며 반복됨, 권위를 가진 작품으로서 자리하며 그 전복과 재해석을 어렵게 만듦
- 셰익스피어 작품의 배경: 인간 이성애에 대한 찬양과 사회적 혐오가 혼재되어 있던 시기로, 상류사회 편입을 욕망하는 수도권 출신의 인물들이 등장함
- 셰익스피어 작품 다시쓰기의 사례: 영화 <시저는 죽어야 한다>(원작 <줄리어스 시저>), 연극 <구일만 햄릿>(원작 <햄릿>), 연극 <틴에이지 덕>(원작 <리처드 3세>)
- 셰익스피어 작품을 ChatGPT와 함께 재구성하고, 참가자들의 다시쓰기 할 고전 공유함

각색의 기술

- 각색의 주안점: 원작에 있는 틈을 발견해 그 사이를 작가의 논리로 재구성해 채워 넣음
- 핵심 질문: "동시대 독자를 어떻게/어디로 유도할 것인가?"
- 내용적/형식적 틈새 찾기: 원작에서 아쉬운 부분을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각각 작가의 욕망과 장르의 방식으로 접근함
- 각색의 기술: 주제·인물·대비·인과·인칭·퍼즐·액자 각색(참고: 안상욱, 『영화 각색, 10가지 스타일』)

연번	성명	제목	원작	주안점
1	김송미	서동KILL요	서동요	서동요를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범죄가 만연한 현재의 시점에서 범죄적 맥락으로 읽어내고, 서동요 속 선화 공주가 주체적인 삶을 개척하는 새로운 결말 의도
2	이승택	All or Nothing	로미오와 줄리엣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장면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두 정상을 보며 언어의 동일성과 그 안에 존재하는 미묘한 거리감에 주목. 말의 역양과 뉘앙스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내면적 이질감과 '이상함'을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함
3	이기근	이 악물고	오셀로	21세기 미국 해군 기지를 배경으로, 원작의 주인공 오셀로를 여성으로 전환하고, 질투를 현대 군 조직 내의 젠더 위계와 권력 구조의 닫힌 시스템의 맥락에서 풀어냄

4	이승규	청이 죽이기	심청전	원작에서 맹목적으로 강요되는 ‘효’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며 비판적인 차원에서 접근
5	정지상	소년을 기다리며	고도를 기다리며	전쟁과 기후위기로 죽음이 만연한 시대 아래 극장의 바깥을 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발, 원작의 폭력을 폭력이 일상화된 시대와 종말의 예후 속에서 다룸
6	원주신	크리플의 마지막을 모르는	크라프의 마지막 테이프	원작 발표 시기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2055년의 미래를 배경으로, 주인공 크라프를 장애인공심을 나타내는 ‘크리플(cripple)’로 변환해,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에서 나아가 미래를 향한 삶의 의지를 담아내고자 함
7	심진우	치고는	사랑과 우연의 장난	젠더 규범성을 벗어나는 인물들을 통해 익숙한 관념(“~치고는”)으로 표출되는 젠더 재현의 억압성과 함께, 사랑의 우연성을 드러냄

전문가 리뷰

본 과정은 참여자들이 고전을 고르고 자신들만의 다시쓰기를 통해 희곡을 완성하고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동시대적인 문제의식과 당사자성을 대입, 고전을 새롭게 보며 자신만의 관점으로 고전을 다시 쓰는 과정이었다. 희곡은 고전을 모티브로 하면서도 고전에 갇히지 않고, 그 배경도 인물도 주제의식도 달라지는, 참여자만의 창작극이라 할 수 있으며, 고전과의 긴장 아래, 고전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고전을 비틀고 풍자하는 부분이 가미되는 가운데, 대체로 배제되고 비가시화된 주체들의 자리가 생겨났다. 희곡 대부분은 원작을 상기시킬 수 있는 제목으로, 은유적 차원의 각색이 드러나거나 원작 자체에 대한 풍자나 비틀을 수반하였다. 페미니즘(〈서동KELL요〉, 〈청이 죽이기〉, 〈이 악물고〉), 장애(〈소년을 기다리며〉, 〈크리플의 마지막을 모르는〉), 젠더(〈치고는〉) 등의 주제가 원작을 전유하는 차원으로 부상하거나 원작 자체를 비판하는 또 다른 층위로 가시화되었다. 대체로 희곡 집필의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을 위해서는, 희곡 쓰기의 기본적인 이해와 방법론, 주의할 지점에 대한 부분이 연계되는 한편, 작품에 대한 또 다른 비판과 성찰의 차원에서, 낭독회 이후에도 합평회나 지속적인 피드백의 시간 역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에필로그

이번 워크숍은 단순히 고전을 재해석하는 창작 수업이 아니었다. 그 기획 취지는 보다 명확하고 정치적이었다.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침묵 당해 온 존재들 · 장애인, 여성, 퀴어, 비인간 동물들 · 그들이 무대 위에서, 서사 속에서, 혹은 세상의 기억 속에서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복원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복원의 방식은 단순히 기존 이야기의 틀에 새로운 인물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닌, 이야기의 중심축 자체를 이동시키는 일이었다.

첫 주차에서 참가자들은 고전의 권위에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무엇의 당사자인지’를 자각하는 훈련을 했다. 이어서 성경, 셰익스피어, 동아시아 고전, 근대 희곡 등 다양한 고전 텍스트가 분석 대상으로 제시되었

고,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지닌 감각, 문제의식, 경험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해체하고 다시 쓰는 실습에 참여했다. 특히, 3주차 박정수 연극학자의 특강 <오이디푸스, 장애인 되다>는 워크숍의 중요한 참조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어떻게 장애를 재현해왔는지, 그리고 그 서사가 어떻게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참가자들은 고전 서사의 폭력성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더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고전을 읽는 눈이 바뀌었고, 그것은 곧 ‘어떻게 다시 쓸 것인가’에 대한 감각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익숙한 이야기 속에 장애인 혹은 어린이 인물을 반드시 등장시킬 것이라는 과제를 받았고, 그 순간 고전은 더 이상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그 자리에 ‘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존재가 들어가는 순간, 서사는 틀어졌고, 다시 써야 할 이유가 생겼다.

최종적으로 참가자들은 『서동요』, 『심청전』, 『오셀로』, 『로미오와 줄리엣』, 『고도를 기다리며』, 『크라프의 마지막 테이프』, 『사랑과 우연의 장난』 등 다양한 고전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서사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작품은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했다. 기존의 중심 인물, 사건, 주제를 해체하고 주변화된 존재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서사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발표회는 참여자들의 작품을 현장의 배우들이 낭독하여 오롯이 작품의 성과를 나누고, 당사자 스스로 작가로 도약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움직임]

「되기, 기억하기, 함께 움직이기」

※2024년도 연속프로그램

과정소개

진행: 김원영, 손나예, 하은빈, 최소영(보조강사)
대상: 움직임을 매개로 한 창작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
일정: 2025년 11월 19일(수)~12월7일(일) * 총8회차
 사전 리서치 2025년 11월 19일(수)~11월 26일(수)
 본 워크숍 2025년 11월 29일(토)~12월 7일(일)
장소: 모두예술극장 3층 모두스튜디오, 연습실, 이음센터 연습실

다양한 몸의 조건과 정체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서로의 몸이 되어보는 시간을 '연습'하는 움직임 워크숍으로, '타자'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고 몸짓과 마음의 특질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타인을 흉내 내거나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닌, 내가 아닌 타자가 '되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몸과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022년부터 매년 조금씩 변주를 거듭해오며, 이번에는 그간에 진행된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되기-인터뷰-발표'에 조금 더 집중하여 진행한다.

진행 | 콜렉티브 손등

콜렉티브 손등은 김원영, 손나예, 하은빈이 함께 만든 팀이다. 다양한 몸의 조건과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는 움직임 워크숍을 통해 서로 다른 몸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엉키는 방법을 탐색한다. 2022년 한국장예인문화예술원 아:음 창작아카데미에서 시작된 프로그램 《되기, 기억하기, 함께 움직이기》를 기반으로, 서울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백남준아트센터 등에서 워크숍과 퍼포먼스를 이어오고 있다.

진행 | 김원영

무용과 연극 작업에 참여하며, 장애와 인권, 예술과 정체성의 문제를 아우르는 글쓰기를 한다.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등의 책을 썼다.

진행 | 손나예

안무가이자 퍼포머로 활동하며, 몸에 깃든 정동이 타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고 있다.

진행 | 하은빈

글을 쓰고 공연을 한다. 『우는 나와 우는 우는』을 썼고 <한 방울의 내가> 등에서 움직임을 만들었다. 불구의 몸, 상한 마음, 잘못된 사람에 관심이 있다.

참여자

김시가, 김해진, 나수아, 문정윤, 박지주, 백경하, 서인혜, 정연빈, 조건숙, 조혜정, 채승호, 최민경, 최유미, 최호찬, 표예진, 현지수, 황경민

[사전 리서치]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11.19. 오후 2시~6시		- 소영의 '되기-발표' 경험 공유 - '되기-발표'를 더 밀도 있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
2	11.23. 오후 2시~6시	되기-발표와 즉흥 퍼포먼스의 연계 모색	- 첫 워크숍 리허설 및 탐구
3	11.25. 오후 1시~6시		- '되기-발표'와 퍼포먼스 연계 방식에 대한 탐구
4	11.26. 오후 1시~6시		- 인터뷰 및 발표 리허설

[본 워크숍]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11.29. 오후 1시~5시	다가가기	- 스트레칭 어 포인트: 손을 마주 잡고, 손안에 연결된 점을 점차 늘려가 보기 - 미러링 · 듣는 걸기: 하나의 큰 원에서 점차 원을 좁히며 옆 사람과 만나 서로를 미러링하기 · 전신 미러링: 미러링을 신체 부위 전반으로 확장해 가기 - 기쁨의 실험: 돌씩 짝지어 서로를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을 기록하기 - 크로싱 더 라인(Crossing the Line): 무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퍼포머가 되고 무대를 완성하기
2	11.30. 오후 1시~5시	되기 1 - 달고, 쓰고, 파고들기	- 이름 공유하기+핸즈 온+에센스 소리: 묵혀져 왔던 감정을 더듬고 날것의 소리로 길어 올리기 - 한 몸 되기: 돌씩 짝지어 점차 접촉으로 확장되고 전체가 하나의 몸으로 확장되어 가기 - 미러링 2 - 크로싱 더 미러(Crossing the Mirror) · 기본 미러링: 두 사람씩 서로의 미세한 움직임을 추적하기 · '무대'에서의 미러링: '등장'의 순간을 만들고, 대칭적 모방과 조율 을 통한 집단적 퍼포먼스 · 가상의 '거울': 2면의 거울에서 만들어진 거울상 4개의 움직임을 가정하고 움직이기 - 러브 레터: "사랑하는 너에게"로 문장을 시작해서 10여 문장을 마 저 만들고, 이후 두 사람씩 짝지어서 낭독하기 *사랑하는 이는 누구 나 될 수 있음
3	12.6. 오후 1시~5시	되기 2 - 달고, 쓰고, 파고들기	- 원 스텝 스코어(One Step Score): 타인의 '원 스텝'을 인식하고 시선과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며 움직이기 - 믿음의 실험: 그룹으로 서서 무게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몸과 경향 성에 따라 힘을 조율하기
4	12.7. 오후 1시~5시	쇼케이스: 되기, 그리고 함께 움직이기	- 원 스텝 스코어(One Step Score): 타인의 '원 스텝'을 인식하고 시선과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며 움직이기 - 믿음의 실험: 그룹으로 서서 무게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몸과 경향 성에 따라 힘을 조율하기

4차 워크숍, 쇼케이스 장면들



주요 워크숍 내용

미러링을 통한 되기

- 듣는 걸기는 하나의 큰 원을 만든 후에, 원 전체의 속도에 맞추어 옆 사람과 어깨가 맞닿을 때까지 점차 원을 좁히다, 자신의 좌우의 한 사람과 교감이 되면 짝을 이뤄 둘 사이의 속도를 찾아가며 미러링을 하는데, 이때 속도, 높낮이, 방향, 멈춤 등에 맞춰 움직임을 진행

- 움직이며 전신 미러링은 손가락, 팔, 다리, 여러 부위를 다양하게 움직임의 범위를 확장하여 미러링하며 움직여 상대방과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활동

- 가상의 거울을 상정한 집단적 차원의 미러링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선 두 사람씩 서로의 미세한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본 미러링에서 시작해, 2팀 이상으로 확장되며 무대를 설정하는 미러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2면의 거울에 맺힌 4개의 거울상을 전체 참여자의 참여로 구현

참여자들의 '되기-발표'

- 2명씩 짝을 지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나'라는 주어로써 발표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발표에 맞춰 즉흥 움직임을 구성하며 인터뷰이의 몸이 되어 봄. 동작 자체의 완결성과 재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대신에, 두 사람 간의 관계성을 우선하여 타인의 몸이 되어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에 접속하는 데 중점을 둠

기존 참여자들의 경험과 역량 축적 및 결합

- 2022년 워크숍 참여자 최소영이 진행자로 합류하여, 2023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참여하게 된 다른 참여자 한 명과 짝을 이뤄 '되기-발표'를 진행, 발표자로서 두 사람은 자신이 인터뷰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를 표현함. 지난 참여자들이 그간 축적된 것을 공유하며 워크숍 이후에도 상호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자발적인 후속 공동체

- 워크숍 이후에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그룹을 결성, 다양한 나이와 몸의 조건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이는 자리가 일회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생기를 갖고 잘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현재 진행자 중 1인이 4회차의 열린 연습실 일정을 공유하여, 기참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함

전문가 리뷰

이번 워크숍은 창작자들이 서로의 내러티브와 움직임의 공유하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예술적 영감을 '자라나게 하는' 과정에 가치를 둔 워크숍이다. 라틴어 creare에서 유래한 'create'는 "만들다, 낳다, 자라게 하다, 성장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창작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내포하며,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감각, 관계, 사고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목이 시사하듯 본 워크숍은 '타인'이 되어보는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가령 '기쁨의 실험'은 참여자들이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글 또는 그림으로 기록하고, 자신이 인터뷰한 그 타인이 되어 상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제를 수행하는 미러링의 과정인데, 이는 단순히 '타인이 되어 보기'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내러티브를 자신에게 가져와 자기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만들어 냄으로써 '내가 너를 이해한다.'를 넘어, '함께 만들어진 이해'를 생성한다.

창작자의 작업 자원(resource)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며, 끊임없는 새로운 경험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감각과 세계를 확장하게 된다. 이는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 Ponty, 1908~1961)가 말한, 개인의 주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타인과 만나고 대화하며, 몸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한다는 상호 주체성(inter-subjectivity)의 개념과 연결된다. 또한, 워크숍의 진행을 맡은 다섯 명 중 세 명이 장애예술가였다는 점은 워크숍에서 '장애'라는 범주적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곧 워크숍은 '장애'를 특징짓지도, '장애'를 굳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모든 객체는 각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몸으로 자연스럽게 존재할 뿐이었다.

에필로그

'되기'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우리는 모두 서로가 결코 될 수 없으며, 서로의 내부에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 '되기 인터뷰 및 발표'는 타인의 몸과 마음을 실제로 입어보고 되어보는 활동이라기보다, 타인이 될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의 '나'를 만나는 일에 가깝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타인을 아는 데 꽤 성실히 실패하고, 대신 뜻밖에도 전혀 모르거나 다소 낯선 내가 된다. 이 활동에서 참여자들은 '나'일 수밖에 없다는 조건 안에서 타인과의 대화와 이해를 더듬어 간다. 잠시 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몸에 담기 위해, 내 몸에 익숙하게 깃든 몸짓과 습관, 태도를 잠시 비워 낸다. 그러면서도 끝내 열어젖힐 수 없는 자신의 피부와 기꺼이 접촉하며, 나와 타인 사이에 놓인 경계를 조심스레 어루만진다. 그 과정에서 '열린 나', '누군가의 곁에 있는 나', '타인을 향해 열린 나'가 새로이 구성된다. 그것은 분명 일상의 나, 이 자리에 모인 몸들을 만나기 이전의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다.

수많은 '나'들의 발표를 지켜보며, '타인-되기'의 철저한 불가능성이 주는 좌절을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불가능한 과업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를 묻기보다, 어떻게 더 창조적으로 실패할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별나고 이상한 '되기'의 실패한 경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애뜻하게 만나고 기쁘게 헤어질지를 묻기. 각자를 각자이게 하는, 극복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차이를 좁히거나 해소하려 애쓰기보다 계속해서 발견하고 감탄하고 축하하기. 바로 그것이 우리를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실패와 시도가 열어젖히는 해방과 연결의 순간들을, '되기'의 상태를 품은 채 함께 무대를 만드는 즉흥적 활동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 수행하는 몸, 공연하는 몸은 곧 기억하는 몸이기도 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해석하고 꺼내어 다른 이야기와 마주치게 하는 몸들. 모두가 다르기에 각자에게 깃든 고유성을 알아보고 기억하는 몸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인 채로 안전할 수 있는 것, 타인과 함께할 수 있는 것, 잠시 함께 움직이며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라면, 그런 순간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워크숍은 중요하고 또 유효하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각예술]

「기술에 앞서 예술 - 기술 접근성을 위한 리서치」

과정소개

진행: 송수연, 남현지(보조강사)
대상: 기술을 예술의 관점에서 다시 사유하고, 장애 관점에서 기술의 의미와 접근성을 탐구하며,
일정: 자신의 창작·연구·활동에 기술을 적용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예술인
 2025년 10월 16일(목)~11월 13일(목) *총 5회차
장소: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

본 워크숍은 참여자가 기술을 스스로 재정의하고, 주체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거나 소비하는 도구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기술을 다시 바라보는 시도를 중심에 둔다.
 기술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개념과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작업이나 창작 아이디어를 기술과 어떻게 연결·확장할 수 있을지 모색한다. 참여자는 자신이 선택한 기술 주제를 직접 리서치하고 공유하며, 고유한 접근 방식과 방법론을 구축해 나간다.

진행 | 송수연

미디어 아트 작가 및 기술문화 연구를 하고 있다. 언메이크랩(unmake lab)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페이스와 센싱,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 소통하는 기술적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기술을 다루는 과정이 창의적이고 비판적 접근이자 사회를 매개하는 생각과 실천으로 확장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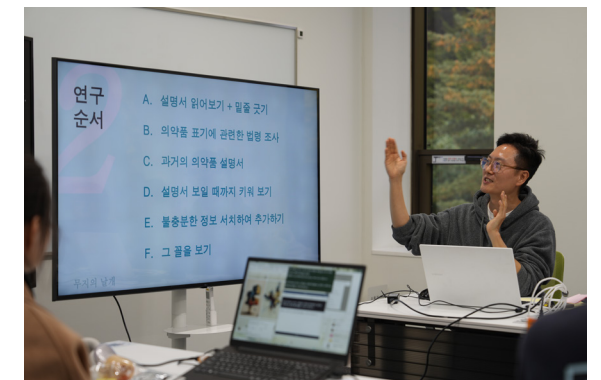
참여자

김은설, 맹소영, 박소영, 설미희, 양지석, 윤주호, 이호진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10.16. 오후 2시~5시	기술을 감각하기	- 내가 주체가 되는 기술 감각에 대해: 기술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이슈 소개 - 기술 문화 이해를 위한 몇 가지 개념들 - 자율적 자기 지식 만들기로서의 리서치 - 기술에 대한 관심 키워드로 질문 만들기 및 리서치를 위한 온라인 아카이브 도구 만들기
2	10.23. 오후 2시~5시	기술의 이면을 탐색하기 & 예술 리서치	- 기술이 사회적·문화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 예술가의 리서치에 대해: 리서치 방법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 개별 리서치 발표: 질문에서 시작하기
3	10.30. 오후 2시~5시	기술의 경계를 확장하기	- 작업(창작·교육·연구·활동)을 위한 질문 만들기 - 기술적 사물로서의 보청기 - 기술의 보이지 않는 물질성을 감각하기 - 개별 리서치 발표 및 피드백
4	11.6. 오후 2시~5시	기술에 대한 다른 관점과 방법론 만들기	- 시의 사물 만들기 - 개별 리서치 발표 및 피드백
5	11.13. 오후 2시~5시	기술, 관점을 너머 이야기와 실험으로	- '1~4회차' 강의 주제 정리/회고 - 참여자 리서치 정리 발표 및 상호 피드백



4주차 개별 리서치 발표 및 피드백



참여자 개별 발표



참여자들이 만든 시의 사물들



남현지 강사와 함께한 4주차 수업 전경

주요 워크숍 내용

기술을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법

- 접근성은 물리적 장벽을 넘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감각을 인식하고 확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함
- 새 의자를 발명하는 일: 이미 존재하는 기술뿐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기술까지 포함하여, 기술이 놓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공간'을 탐색하는 사고 실험
- ¹크립 테크노사이언스(Crip technoscience): 장애학(Crip theory)과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의 교차 지점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장애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결함'으로 보는 주류적 기술 관점을 비판하고, 장애인의 삶과 경험을 중심에 두어 기술과 과학의 개발·활용 방식을 재구성하는 접근¹
- '기술의 암흑상자(블랙박스)'는 인공지능 등 기술의 설명 불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은유로, 기술적 작동 원리를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통해 기술을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함

리서치 연결과 확장을 위한 도구 만들기

- are.na 웹 기반 아카이빙 도구를 활용하여 리서치 자료를 수집·연결하고, 질문을 중심으로 탐색 구조를 형성
- ²비판적 제작(Critical Making): 디지털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실천적 접근으로, 완성된 결과물보다 제작 과정에서 실험과 학습 자체에 의미를 두는 방법론²
- 사변적 디자인(Speculative Design): 가상적 사물을 디자인하는 것을 통해, 그 사물이 속한 세계의 대안적 비전을 상상하고 추측하게 하는 디자인 방법론으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리서치 방법론·접근법·미디어를 사용하여 학제 간 통합적 실험이 이루어짐

리서치의 개념·방법론·사례

- 리서치는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 또는 작업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왜 주제를 탐구하고 싶은가?', '무엇을 알아내고 싶은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와 같은 질문

¹ Hamraie, A. & Fritsch, K. (2019). Crip Technoscience Manifesto. Catalyst: Feminism, Theory, Technoscience.

² Ratto, M. (2011). Critical Making: Conceptual and Material Studies in Technology and Social Life.

에서 시작함

- 리서치 방법론
 - 문헌 연구, 사례 조사, 글쓰기
 - 기록(영상·사진), 필드 리서치
 - 재료 연구, 매체 연구, 디자인 연구
 - 인터뷰, 퍼포먼스
 - 코딩, 프로토타입 제작
 - 오픈 소스 및 생성형 AI(GPT) 활용

- 리서치 사례

- 증언과 개입: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는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에 위치한 다학제 연구 그룹으로, 건축 기법과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
- 사고 실험: 토마스 스웨이츠(Thomas Thwaites)의 토스터 프로젝트는 전기 토스터를 처음부터 만드는 개념적 디자인 프로젝트로, 토스터를 미적·기계적으로 재현하고, 일상의 가전제품을 물질·생산·소비의 관점에서 재조명함

보청기를 비판적 제작으로 접근하기

- 보청기는 청각 보조 도구이자 특정 주파수를 증폭시켜 청력을 보조하는 기술적 사물
- 보청기의 역사는 소리 증폭 기술의 역사이자 무선 기기 기술의 역사로, 보청기를 단순히 '의료기기'가 아니라, 몸-감각-사회-기술-디자인이 얹혀 있는 복합적 매개물로서 해석
- 기술·사물은 물질적 구성 요소 외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구축되며, 사회와 연결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함
- 보청기 산업의 경우, 소수의 글로벌기업 중심의 생산 시스템으로 인해 기술과 특허 장벽이 높고, 경쟁이 제한적인 것에 반해, 오픈소스 전자 장치로 만든 접근이 쉬운 보청기
- 보청기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신체·감각·경제가 얹힌 권력 관계를 제작 과정을 통해 드러내고 개입하기

탈구축하는 시의 언어들

- 시 쓰기는 사물에 대한 기존의 의미를 벗어나고 언어의 사물성을 감각하며 사물과 언어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 독자에게 시적(미적) 경험이 가능한 사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의도와 의미로부터 한발 뒤로 물러나서 '시적인 것(미적인 것)'을 발생시키는 연습이 필요함
- 사물로서 시
 - 시에서 언어는 지시적 결합을 넘어 물질성을 가진 사물로, 생성적이며 개방성을 갖고 독자의 수행을 추동함
 - 사물에 부여된 기존의 인간적 의미를 의심하고, 사물 그 자체에 접촉하고자 시도하기
 - 떨어져 있던 사물들, 언어들에서 새로운 유사성과 차이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통해, 사물과 언어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

전문가 리뷰

본 워크숍의 과정이 다루는 기술은 단순히 디지털 등의 첨단 기술을 넘어, 우리가 생활하며 사용하는 모든 활동에 속하는 광범위한 차원의 의미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예술적으로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어 장애를 떠나 예술가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기술에 대한 감각 경험을 접근성으로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의미가 있었다.

수업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참여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한편, 구체적인 과정의 측면에서도 기술 접근성 지도 그리기, 기술을 감각 하기에서 시작하여,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기술의 이면을 탐색하고, 나아가 기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다른 관점과 방법론을 설계해봄으로써,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회 전반의 접근성 차원과도 연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기술에 대한 관점을 갖는 걸 넘어, 기술을 통한 예술, 접근성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 방식의 과정을 설계해, 참여자들에게 많은 경험을 제공했다.

에필로그

본 워크숍에서 ‘접근성’은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참여자가 기술에 대해 주체적 감각을 갖고 기술을 재정의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을 목적과 도구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술을 이해하며, 작업과 교육, 창작 아이디어를 기술과 연결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리서치 활동이 함께 진행되었다.

5주간 프로그램 시작 전에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활동과 사례를 소개하여, 기술을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 감각하는 관점을 제안했다. 매주 참여자들은 자신의 창작, 교육적 실천과 연결해 주제를 확장하는 리서치와 함께 발표를 진행했다. 리서치 과정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 더 나아가 자료의 재배치와 재해석, 그리고 질문 만들기를 통한 메타적인 개념과 내용으로까지 깊이 있게 확장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시행착오는 새삼 리서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 주었다.

참여자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스스로 질문을 형성하는 방향에서, 리서치 주제는 예술과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참여자의 경험과 활동 배경에 따라 확장되었다.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예술 기획의 개념과 방법론을 구축해 가는 과정도 있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예술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한 참여자도 있었다. 창작 작업의 확장을 위한 크립(Crip) 기술 연구도 있었고, 기술 사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넘어서며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전시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참여자도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작업을 지속한 참여자도 있었다.

이런 시도들은 워크숍 동안 자신이 계획한 작은 이정표를 향해 나가는 여정으로, 예술가의 리서치에서 본질적인, 자율적인 자기 지식을 만드는 과정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나아가 참여자 누구나 편하게 생각을 나누고 말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경험적, 관계적 학습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감각 LAB | 매체확장

[사운드]

「그물코 알아채기 - 어떤 소리든, 그것은 음악」

과정소개

진행: 김대희, 김선기(보조강사)

대상: 소리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사운드아트와 즉흥음악적 표현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

일정: 2025년 6월 26일(목)~7월 24일(목) * 총 5회차

장소: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

소리라는 감각을 매개로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으로, 청각 중심의 감각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소리를 새롭게 경험하고 이를 음악으로 확장한다.

특별한 음악적 재능이나 연주 경험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우리 사이에 숨어 있는 연결을 감지하고 이를 감각의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적 실천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미세한 진동, 느슨한 관계의 실마리, 감각의 방향 전환을 함께 발견하고 나누고자 한다.

진행 | 김대희

김대희는 사운드 및 바이오 아티스트로, 인간과 미생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소리를 매개로 탐구한다. 일상의 사운드시스템 속에 숨겨진 비인간 존재와의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며, 이를 공연, 전시,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관객과 공유한다. 한편, 아티스트 콜렉티브 ‘모듈라서울’에서는 실험적 사운드와 기술 기반 예술을 연구하며, 일렉트로어쿠스틱 트리오 ‘삼킴’에서는 즉흥음악을 통해 음악적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참여자

강다현, 김도윤, 박다현, 송서영, 오승은, 이진솔, 이진영, 전영신, 전예총, 조윤서, 최민경, 허가연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6.26. 오후 2시~5시	소리와 음악 사이	음악과 소리의 관계성 탐구 - 집의 소리 풍경을 상기하고 묘사하기 - 일상에서의 다양한 음악과 소리의 사례 공유하기 - 현대음악의 여러 사례 살펴보기
2	7.3. 오후 2시~5시	소리의 관계	사운드와 관계 맺기 - 앰비언트뮤직·구체음악·사운드시케이프에 대한 학습 및 사례 공유 - 사운드 맵(sound map) 완성하기 - 조별 사운드시케이프 녹음
3	7.10. 오후 2시~5시	소리의 재현과 감각의 확장	소리의 편집, 재현 방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 소리의 관계성 탐구 - 편집 전후의 소리 차이와 멀티채널 사운드 시스템의 이해와 체험 - 오감 이외의 다양한 감각 토의
4	7.17. 오후 2시~5시	소리의 대화	사물 악기 연주의 연습 및 실제 - 즉흥 연주 기법 및 규칙 학습 - 각자의 사물 악기 연주 - 그래픽 스코어로서 각자의 그림 악보 그리기
5	7.24. 오후 2시~5시	소리의 구성	조별 연주곡 완성 및 연주회 - 각자의 그림 악보를 공유하고 상상하기 - 조별로 연주곡 구성 및 연습 - 관객 없는 연주회 진행



5주차 수업, 김대희 강사



5주차 수업 전경. 원의 대형을 유지하여 상호 개입이 가능한 대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됨



2주차 수업 중 사운드 맵 작성 과정에서, 사전 작업으로 실행된 참여자들의 포스트잇. 소리의 네 가지 범주로, “가장 흔하게 들린 소리”, “가장 높은 주파수의 소리”, “무엇인지 식별할 수 없었던 소리”, “가장 낮은 주파수의 소리”에 대해 적은 메모들을 전시 형태로 구성하여, 이후 수업에서 활용됨



5주차 수업에서 즉흥음악 연습법의 일환으로 실행한 ‘콩주머니 그물망’ 놀이 전경으로, 해당 놀이는 원형 대열에서 무작위로 상대방을 향해 콩주머니를 던지며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됨

주요 워크숍 내용

기대와 걱정

- 워밍업(1주차): 프로그램에 관한 ‘기대’와 ‘걱정’되는 부분을 포스트잇에 적어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며 공감대를 형성.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됨
- 중간 나눔(3주차): ‘기대’와 ‘걱정’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피고, 드로잉 및 짧은 글로 표현

소리 풍경의 종류

① 앰비언트뮤직(Ambient Music): 전자음악의 한 장르로, 소리 자체가 중심이 되어 공간, 분위기, 감각적 상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 음악. 멜로디나 리듬, 구조적 긴장과 해소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위기·음색·공간감을 강조하여 무심하게 흘러들어도 되는(“흥미롭기도 하고 무시해도 좋은 as interesting as it is ignorable”) 브라이언 이노 Brian Eno) 감각적인 환경을 구성. 대표적 아티스트로 브라이언 이노가 있으며, 1970년대 후반에 하나의 장르로 성립

② 구체음악(Concrete Music): 자연이나 인간이 만드는 실제 소리를 녹음한 뒤, 전자적으로 변형·편집해 음악적 작품으로 만드는 실험적 음악 장르. 기존 음악의 개념을 넘어서, 모든 소리를 음악적 재료로 활용하며, 소리의 출처나 의미보다 그 소리를 그 자체로 청취하도록 유도. 프랑스 작곡가 피에르 셰페르(Pierre Schaefer, 1910~1995)에 의해 1948년 시작됨

③ 사운드시케이프(Soundscape): 소리(Sound)와 풍경(Landscape)의 합성어로, 인간이 인지하는 모든 소리 환경을 의미.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결합된 환경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의 총체. 필드 레코딩을 중심으로 실제 환경의 소리에 대한 출처와 의미를 지우지 않고, 장소성과 사회적 맥락을 강조. 환경을 인식하고, 보존 또는 재구성하려는 생태적·사회적 목적을 띠며, 캐나다 작곡가 머레이 쉐퍼(R. Murray Schafer, 1933~2021)가 개념을 체계화함

사운드 맵

- 나와 주변 환경의 관계 탐구: 인근 교회 공터에서 가만히 앉아 들려오는 소리를 사운드 맵에 표기. 가장 가깝거나 가장 멀리서 나는 소리, 가장 조용하거나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 흔하게 들리거나 잘 들리지 않는 소리 등을 들으며 사운드 맵을 완성

“가운데 작은 원은 당신, 즉 듣는 사람입니다.

큰 원은 현재 당신의 시각적 지평선을 나타냅니다. 들리는 소리를 단어, 그림, 화살표, 기호 등을 사용해 지도에 표시해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소리부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어쩌면 당신 스스로 내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기록하면서, 천천히 주의를 바깥으로 확장해 보세요. 1m 떨어진 소리... 5m 떨어진 소리... 10m 떨어진 소리...

가장 멀리서 들리는 소리까지 들었다면, 천천히 다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림 악보

- 예시: 코넬리우스 카듀(Cornelius Cardew)의 <논문(Treatise)>(1963~1967)은 193페이지에 이르는 그래픽 악보로, 아무런 설명이 없이 해석은 오로지 연주자에게 맡겨짐. 기호로만 구성

되어 있고, 음악을 언어처럼 다루고자 한 실험으로, 일부만 발췌해서 연주가 가능함

- 일상에서 각자 좋아하는, 소리를 내는 사물을 연구하며 악기로 삼고, 즉흥 연주 연습법을 활용해 서로의 소리에 응답하는 ‘소리의 대화’를 시도

- 각자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림 악보를 공유해 서로 소리를 상상하고 나눔

스스로를 초대하기

- 자기 자신을 음악을 구성하는 존재로 초대: 일상에서 소리와 내가 관계 맺는 방식, 또는 그 안에 스며드는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면서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고, 특정 감각에 초점을 맞춰 집중함

- 주변의 소리를 알아차리고 소리 간의 관계성을 통해,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의 작은 세포들이 깨어남을 경험하고, 명상과 같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음

관객 없는 연주회

- 조별로 그림 악보를 모으고 구성하여 음악 작곡: 트리오로 총 3팀 구성, 각 팀 당 3분 내외 연주곡을 작곡

① 마지막 삼인조(박다현, 이진영, 전영신), <자화자찬>

② 팀 Joy 개(이진솔, 조윤서, 허가연), <파도가 보이는 바다>

③ 팀 점선면(김도윤, 송서영, 전예총), <그알>('그'물코 '알'아채기)

전문가 리뷰

청각 중심의 감각 체계로부터 가시적·비가시적 관계와 감각에 집중하고 음악적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일깨우고, 예술적 표현을 시도함으로써 고유한 미학적 경험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현대음악과 관련된 정보를 강의 형태로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감각 놀이를 통해 소리와 참여자 간의 관계를 감각적으로 전환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상호 관계 확장과 예술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진적으로 단계별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참여자들에게 교육의 의도와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같은 학습공간임에도 늘 새로운 느낌으로 공간을 만나게 된다’, ‘수업을 통해 작업에 대한 큰 힌트와 용기를 얻는다’, ‘소리로 대화하며 타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나에게서 벗어나 전체와 대화하는 경험’ 등 소회를 밝혔다.

사운드아트와 즉흥음악에 관심 있는 장애/비장애 지원자 12인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수업 관련 준비물, 도구들이 충분하게 마련되었고 문자통역 등 접근성 지원이 제공되는 가운데,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통합적으로 참여하여 소리를 매개로 일련의 예술 경험을 축적해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생각한다.

에필로그

어떤 소리든, 관계 속에서 음악이 된다.

나와 나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그리고 나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관계, 이 세 가지 층위를 동시에 세심히 감각하며, 사운드시케이프, 멀티채널 전자음악, 즉흥음악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소리에 스스로를 얹고, 다른 이와 소통하며, 전체의 조화를 느꼈다.

매회차 가장 먼저 진행한 ‘스스로의 초대’는 보다 내밀한 듣기의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감각의 부분들에서 작은 세포들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거나 마치 명상과 같은 평온함을 느끼기도 했고, 수업의 전체 흐름이 느슨한 음악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이후, 함께 소리를 듣고 만드는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도,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서로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함께 소리를 발견하고, 소리의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의 현상이 다양하게 감각되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본인 작업에 자양분이 되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림 악보를 만들고 관객 없는 연주회를 진행하는 과정은 각자의 리듬이 공명하며 조화를 만들어 내는 시간이었다.

이번 그물코 알아채기에서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멀티채널 전자음악과 감각 확장에 관한 부분을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교류와 경험이 중요시되는 수업이므로, 전 일정 참여가 중요하고, 참여자 모두 다양한 작업을 하는 창작자이기에 향후 소리를 합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기존 과정에 더해, 가상 모듈러 신스(VCV Rack)를 활용한 사운드 디자인 수업 3회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낭독의 재구성 - 수어번역 학습연구모임」

※2024년도 연속프로그램

과정소개

진행: 김주희(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대표), 신재훈(연극 연출가, 극단 작은방 대표)
대상: 농인 수어통역사와 청인 수어통역사 각 1인으로 구성된 2인의 팀
참여자: 명혜진, 윤하원, 조희경, 지혜원
일정: 2025년 7월 14일(월)~9월 8일(월) * 총 6회차
장소: KT&G 상상플래닛 스케일업룸

〈낭독의 재구성〉은 창작자와 농인 관객을 잇는 수어번역 학습·연구 모임으로, 한 편의 희곡을 연극 예술가와 수어 전문가가 함께 읽고 분석하며 공연 맥락에 적합한 수어표현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번역의 개념과 필요성을 되짚고, 작품 분석을 바탕으로 각 장면의 의미·감정·상징을 농문화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수어로 옮기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수어번역 어드바이저와 작품 해석 어드바이저가 참여해 워크숍을 이끌고, 각 팀은 자체 연구 모임을 통해 번역 전략과 표현 방식을 심화한다. 최종, 과정 공유회에서는 농인 당사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완성한 번역 낭독과 함께, 그동안의 연구 과정을 나눈다.

진행 | 김주희_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대표

사단법인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농인을 잘 보고 수어로 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바른 농정체성 확립을 위해 농아동, 농청소년과 함께하고 있다. 현재 국내 유일의 수어 중심의 대안학교 및 공동육아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진행 | 신재훈_극단 작은방 대표

극단 작은방에서 글을 쓰고 연출을 한다. 〈정서진별곡〉(2014), 〈시간의 난곡〉(2015), 〈비극을 찾는 무대〉(2018) 등을 쓰고 연출했으며, 〈오늘은 모든 희망을〉(2017), 〈금조 이야기〉(2022),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2022), 〈견고덕걸〉(2023·2025) 등을 연출했다.

참여자

두눈한점_조희경, 윤하원 | 이래봄_지혜원, 명혜진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7.14. 오후 2시~4시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 - 수어번역 기초 강의: 번역 과정에 대한 기본 사항 등 소개 - 과제 안내: 박지선 작 「견고덕걸」
2	7.28. 오후 2시~4시	접근성과 편의제공	희곡 읽기 및 토론 1. 작품 첫인상, 소감 나누기 2. 창작자가 느낀 작품의 매력 3.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4. 공연 스타일: 영상관람 5. 장면의 주안점
3	8.4. 오후 2시~4시	번역 컨설팅	- 팀별 번역 과정 참관 및 컨설팅 - 연구 과정 참관 및 컨설팅 - 작품 해석 관련 컨설팅
4	8.11. 오후 2시~4시		
5	8.25. 오후 2시~4시	연구 중간 점검	번역 시연 및 피드백 - 필수 번역(1~8장)과 선택 번역(9~15장)을 함께 검토하며 진행 상황 공유
6	9.8. 오후 2시~4시	과정 공유회	수어 낭독회 - 수어 낭독 및 번역 연구 과정 공유: 조희경(1~4장), 명혜진(5~8장), 윤하원(9~12장), 지혜원(13~15장) 순으로 진행 - 소리를 보여 주는 사람들 교사·학생을 초대해 피드백 수용 - 번역 전략의 보완점과 농문화 중심의 접근 방향 점검



5주차 연구 중간 점검 현장



6주차 과정 공유 현장

주요내용

수어번역의 기본적 토대

- 번역이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세밀하게 고려해 수정 과정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통역은 즉시성을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으로, 공연 수어통역에서도 사전 번역이 필수적임
- 음성언어의 뉘앙스·고저·감정 등을 섬세하게 파악하는 데 강점이 있는 농인과의 협업을 통해 청인 번역자가 지닌 수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
- 번역 과정에서는 청인 중심 해석에서 벗어나 농문화 관점으로 접근하며, 어휘 선택, 숨은 의미의 설명 범위, 농 관객의 자율적 이해 여지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함
- 소보사의 「시설 밖, 나로 살기」 번역 사례를 소개하고, 팀별로 농인 중심의 번역 전략을 설계해보기

희곡 분석

- 「견고덕걸」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서사 구조와 인물 간 관계를 해석하고, 실제 공연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영상 클립을 시청하며 장면의 표현 방식과 연출적 특징을 살핌. 이후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번역 시 고려해야 할 주안점으로, 감정의 결, 장면 전환의 의미 등에 대해 참여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눔

번역 컨설팅

- 실제 번역 과정을 참관하며 수어번역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관찰하고, 이후 김주희 대표와의 대화 시간에서, 현장에서 번역가의 판단 기준과 농문화 관점의 번역 원칙이 공유됨
- 신재훈 연출가와 함께 희곡을 분석하며 작품의 맥락, 대사 속 은유와 외래어 처리, 감정과 호흡의 시각적 구현 방식 등 번역에 유의할 부분들을 다룸
- 청인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표현(예: “월 보 겸바”)이나 오방색이나 블랙의 의미 등 중요한 상징 요소를 연출가에게 직접 확인하며 텍스트의 의도를 명확히 해석해야 하는데, 김주희 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이 원문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연출자와의 소통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농문화를 이해한 통역자가 농인 관객에게 어느 수준의 정보와 은유를 전달할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함
- 외래어 처리 방식, 의미 중심의 간결한 번역, 수어 공간을 활용한 감정·관계 표현, 청각적 요소를 시각적 리듬으로 변환하는 기법 등 실질적인 번역 전략을 제시하며, 번역은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농인 관객이 장면을 ‘함께 체험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어야 함

참여자 피드백

두눈한점

모든 참여자가 수어번역 학습모임을 통해 번역 이론이나 더 나은 번역을 위한 기준과 방향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별도의 교육이나 명확한 기준 없이 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번역을 연구해야 했기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희곡의 분량이 많아 전체를 번역하는 데 부담이 따랐고, 앞으로는 약 3장 정도를 선별해 번역하거나, 연구모임을 3단계로 나누어 같은 대사의 번역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어 낭독회와 관련해서는 학생보다는 농인 전문가를 섭외해 보다 전문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받는 것이 수어 번역 연구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연극에 대한 통역 방식보다는 ‘수어번역’ 자체에 초점을 맞춘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향후 학습모임에서는 청인 1명과 농인 2명이 한 팀을 이루는 구성이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이래봄

연극 및 공연 수어통역을 평소 지속해오며 농인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 무대와 수어통역사의 조화 등을 우선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번역 자체에만 집중했던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학습연구 모임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 번역 그 자체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번역 전문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팀원인 명혜진 참여자가 과정에서 장기간 휴식하게 되어 대부분의 번역 작업을 혼자 담당해야 해서, 체력적·정신적 부담 역시 컸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작업을 끝까지 완수했다. 또한 번역부터 공유회 발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농인과 청인 수어통역사 사이의 역할 분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특히 무대에서 직접 통역을 수행하는 농인 통역사와 그 이전 단계에서 청인 중심의 대본을 농인 통역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청인 수어통역사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필로그

본 사업은 수어번역 학습모임의 특성을 살려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운영을 지향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을 살펴본 결과, 자율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수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아 학습모임이 수어 교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활발히 활동 중인 통역사들이 자신의 실무 연장선상에서 접근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학습모임이 단순한 공유나 연습을 넘어 수어번역의 전문성과 연구적 성격을 갖춘 장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번역의 원리와 절차, 농·청 협력 구조의 실제 적용을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수어로 번역하는 일은 단순히 공연을 통역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텍스트를 번역해 공연을 만드는 과정과 같이, 수어통역 또한 독자적인 해석과 창조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우리는 공연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이를 수어통역의 토대로 삼았는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수어 번역이

독자적 해석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이번 과정의 가장 큰 성과이기도 했다. 특히 배역이 나누어진 대본을 한 명의 수어통역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사 전달을 넘어, 이야기하듯 지문까지 적절히 번역해야 했다. 더 나아가 수어통역사가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지문을 재창조해야 했다는 점에서, 이 작업의 고유한 가능성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이번 학습과정에서 도출된 가장 의미 있는 인식의 순간이다.

감각 LAB | 창조적 접근성

「모두의 창작 워크숍 - 여기쯤」

과정소개

진행: 금일공업(김준서, 신동혁)

대상: 일상 공간의 감각을 새롭게 탐색하고, 이를 창작으로 확장해 보고 싶은 예술인 누구나

일정: 2025년 9월 3일(수)~10월 24일(금) *총 10회차

결과발표 및 전시_10월 24일(금)~26일(일)

장소: 모두예술극장 연습실1, 연습실2, 이음센터 커뮤니티2

전시_모두예술극장 스튜디오

장애 당사자의 감각을 중심에 두고, ‘편의점’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상상하는 창작 워크숍이다. ‘높이’·‘넓이’·‘속도’라는 세 가지 감각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열대, 통로, 상품 찾기의 거리와 시간 등을 함께 탐색하며, 모두를 위한 공간을 설계해본다. 각자가 좋아하는 편의점 상품을 통해 자신의 취향, 감각, 나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촉각, 색, 소리, 향 등에 담긴 자신의 기억을 탐구하고 표현해본다. 서로의 감각을 존중하며 ‘여기쯤이면 괜찮지 않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우리의 일상 공간을 함께 다정하게 다시 그려보고자 한다.

진행 | 금일공업(김준서, 신동혁)

금일공업(대표: 신동혁)은 김준서, 신동혁으로 구성된 작가 겸 기획자 듀오로, 기술 발전 시대에 해결되지 않는 불편함을 다르게 인식해, 새로운 설계의 방법론을 찾는다. 이를 위해 흩어져 있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의 오오디 데이터(OOD DATA)를 수집·정제하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재밌고 불편한 느낌을 인공지능, 3D 스캔, 애니메이션 기법 등을 활용한 작업으로 선보인다. 또한, 도시의 불편함을 탐색하기 위한 워크숍과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참여자

강예인, 김문일, 김태은, 박정섭, 박정연, 여진실, 이슬기, 이승규, 조주현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9.3.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오리엔테이션 - 높이가 다른 과자 뷔페 경험하기	- 비정형 구성: 각 과자의 일부를 젓가락을 활용해 선택하기 - 높낮이 좌대에 배치: 낮음·중간·높음으로 된 3단 좌대에 과자를 배치하고, 그 차이를 은유적으로 경험하기 - 취향 나누기: 서로 다른 과자에 대한 취향을 이야기하면서 관계 형성하기 * 창조적 접근성: 기능·규정 중심을 넘어 감정·기억 등을 이야기하고, 예술적으로 실험하는 방식
2	9.10.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창조적 접근성 탐구 - 박스 헬멧 을 쓰고 과자 뷔페 경험하기	- 박스 헬멧: 좁은 렌즈로만 보이는 박스 헬멧을 착용한 후, 과자 뷔페를 이동하며 과자를 선택함으로써, 시야 제약이 '선택권의 제한'으로 이어짐을 경험 * 창조적 접근성: 기존의 규정에서 벗어나, 감각과 우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접근성에 접근해야 할지를 예술적으로 실험하는 것 - 높이: 사람마다 시선의 위치가 다름에서 오는 각자의 보이는 것, 닿는 것, 소통하는 방식 등에서 만들어지는 차이
3	9.17.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여기즘’의 높이 - 다양한 높이로 서로 대화하고 그림 으로 표현하기	- 여러 높이의 의자 위에서 대화하며 서로 다른 높이에서의 대화를 경험하기 - 공동 드로잉: 커다란 벽면에 붙은 종이를 각자 다른 높이에서 그려보기 * 창조적 접근성: 단일한 표준 혹은 숫자로 만들어진 평균을 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높이가 함께 존재하는 환경을 상상하고 실험하는 방식 - 넓이: 단순히 폭의 개념이 아니라, 타인과의 거리·간격·관계의 문제 - 거리 조종을 통한 대화: 서로 멀리 떨어져 대화하거나, 아주 가까이 붙어 앉아 대화
4	9.24.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여기즘’의 넓이 - 다양한 넓이로 서로 를 묶고 편의점 을 이용하기	- 집단 이동: 하나의 줄에 묶여 외부로 나가 함께 걷기 * 창조적 접근성: 모두에게 같은 간격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적절한 거리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공존할 방식을 찾는 것
5	10.01.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여기즘’의 속도 - 박스 헬멧을 쓰고 편의점의 상품 찾 기	- 속도: 개인마다 다른 리듬과 템포, 선택과 행동의 시간. - 기다림: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기다리게 하는 경험은 곧 관계의 신호 - 박스 헬멧 착용 후 편의점에서 상품 탐색 및 선택 * 창조적 접근성: 속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를 존중하며 함께 머무는 방식
6	10.15.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여기즘’의 창작 준비 - 아이디어 스케치	- 정리 및 제작 로드맵 공유 - 라인테이프를 활용한 도면 설계 및 다양한 구조물 사례 조사 - 전시 논의 - 접근성 보완 실험 및 아이디어 스케치
7	10.21.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여기즘’의 창작 - 도면 그리기	- 라인테이프를 사용해 바닥 위에 도면 구현 - 설계 협의: 참여자 각자의 도면 스케치 공유 및 프레젠테이션 - 접근성 고려: 굵고 명확한 라인, 시각 대비, 명확한 통로 및 구역 구분을 실험하기
8	10.22.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여기즘’의 창작 - 구조물 만들기 1	- 주제: “당신의 여기즘은 무엇인가요?” - 구조물 제작: · 재료: 종이상자, 테이프, 가위, 커터, 종이, 매직 등 단순한 도구 사용 · 형태상의 제약 없음 · 접근성을 고려한 창작: 저시력자에게는 굵은 라인, 청각장애인에게는 텍스트 및 시각적 안내 포함 · 실제 편의점의 시각적 요소를 섞어서 도면 보완하기

9	10.23.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여기즘’의 창작 - 구조물 만들기 2	- 창조적 접근성에 관한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창작으로 완성해 나가기 - 공간 조정 · 도면 위에서 구조물 간의 거리, 관람 동선, 접근 구역의 폭을 협의 · 저시력자 관람을 위한 색 대비 재조정 · 손 닿는 위치, 안전성, 이동 경로 점검 - 작품 이름 짓기 및 설명 첨부
10	10.24.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여기즘〉 접근성 안내 제작 및 결과 발표, 오프닝	- 전시 설치 마무리 · 개별 구조물 보완 및 설치 점검 · 전시 동선 정리 - 시각·청각 접근성 구축 · 포스터 제작 · 영상 제작 계획 및 녹음 스크립트 작성 · 전시 소개용 수어통역 영상 제작 및 편집 - 전시 오프닝: 전시 및 작품 소개를 통해 창조적 접근성의 의미 공유



5주차 박스 헬멧을 쓰고 편의점의 상품 찾기 워크숍 현장



전시 《여기즘》 설치 작품



전시 《여기즘》 작품 제작 현장



전시 《여기즘》 작품 소개 모습

주요 워크숍 내용

창조적 접근성을 통한 공존

- 전반의 과정(1~5회차)에서, 불편함을 단순히 개선의 대상이 아닌, 관계를 재설계하는 창작의 계기로 삼고, 과자 뷔페, 박스헬멧 체험, 높이 실험, 거리 실험 등 다양한 감각 실험 아래, 달라진 감각으로 인한 느낌과 평소의 불편했던 또는 긍정적이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을 통해 접근성의 개념에 다다르고자 함
- 접근성을 경험할수록, 모두를 위한 접근성은 하나의 답으로 수렴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됨. 따라서 '보편'의 기준 대신 '공존'의 방식을 고민하며, 매회 다른 창조적 접근성에 대한 개념에 접근하고자 함. 서로의 감각을 존중하고 '여기쯤이면 괜찮지 않을까?'를 서로 물어가며 '여기쯤'은 계속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

접근성을 설계하는 창작

- 후반의 창작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스케치(6회차)하고, 라인테이프를 이용해 저시력·시각장애 관람객을 고려한 도면을 설계하고 상자 구조물을 제작하여 실제 공간 속 접근성을 조형적으로 구현하고자 함(7~9회차)
- 단순한 제작자가 아니라 기획자이자 설계자로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여기쯤'을 구조화하며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과정을 경험
- 전시(10회차)에서는 전시의 작품 음성해설, 수어통역 등 다층적인 접근성을 토대로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예술의 개방성을 구체적으로 제안

질문을 던지는 수행 방식

- 하나의 기술적 기준이 아닌 관계와 감각, 협의와 조율의 예술적 언어를, 진행자의 정해진 답이 아니라,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이 한데 모여 하나의 공간을 완성해 나가며, '여기쯤이면 괜찮을까?'라는 기획의 질문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사람들에게 적용하고자 함
- 워크숍의 과정에서 총 여섯 팀, 일곱 명의 작가가 만든 여섯 작품이 전시되면서, 다양한 감각이 주는 불편함, 낯설 등의 감정을 통해 미처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환경에 대한 체험과 함께, 접근성에 대한 필요성과 질문을 만들어 냄

연번	성명/팀명	작품명	작업의 방향
1	박정연, 이슬기	여기쯤의 넓이	휠체어 이용자가 편의점을 이동할 때, 마주하는 감각을 함께 경험해보기를 제안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넓이'에 대해 질문
2	조주현	거대한 내 과자	큰 과자를 만들고 이름을 오려 붙이고, 낮은 높이로 배치해, 만져서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이 주는 접근성과 '높이'의 수월성을 고찰
3	박정섭	박스 높낮이속체험	편의점의 높이·넓이·속도 관련한 복합적 불편함
4	김태은	어떤 높이	익숙하지 않은 높이와 시야에서 물건을 체험하며, 다른 몸의 움직임과 감각을 마주함
5	이승규	불안한 냉장고	냉장고에서 높이 있는 물건을 꺼낼 때 느끼는 불안함을 모티브로 높이에 대한 접근성 고민
6	김문일	불편한 휴식	익숙한 편리함 대신 '불편한 휴식' 속에서 진짜 쉼이 무엇인지 묻고, 상자 안에 숨어있는 사물을 상상하며 감각의 불편함을 체험해보기

전문가 리뷰

전반의 감각 실험에 이어, 후반의 창작 실험에서 참여자는 재료 선택, 창작 설계, 작품 제작을 전개하며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했던 감각을 실제 조형물로 만들어 새로운 접근성을 제안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역량 강화와 관계 도모의 계기가 마련하였다.

워크숍은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 아래 진행되었으며, 수어 통역 등 접근성 지원이 제공되어 장애·비장애 참여자들 모두 세심한 배려와 함께 교육에 통합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결과발표 전시에서 각 작품은 휠체어 이용자에게 좁은 넓이, 시각 정보가 제한되는 작은 글씨,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높은 진열대 등 익숙하지 않은 높이와 시야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통해 '편리함'의 이면에 숨겨진 접근성의 문제와 감각의 차이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전시에서 참여자들 각자 작품의 의도 및 체험을 위한 가이드를 담은 영상은, 전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작품의 구체적인 감각적 경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에필로그

이번 워크숍은 감각적 접근성의 예술적 탐구라는 독창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그 과정에서 고유한 감각적 통찰과 접근성 개선의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실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필요성을 체감했다. 전시에서 참여자들이 제작한 구조물뿐만 아니라, 전시 이전의 도면, 전시에 추가된 접근성 해설과 그 촬영 방식, 그리고 워크숍 제반 과정과 발표, 사전의 운영안까지를 함께 엮으면, 일상에서의 접근성 탐구에 대한 사례집이자 현장형 매뉴얼으로서 충분히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적 접근성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이에 접근하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성을 고려한 것과 같이, '여기쯤 터치 투어', '여기쯤 음성해설' 등 감각적 접근성을 심화한 연계 교육 모듈 역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질감·입체·재질 중심의 공간 재구성 실습으로서 '터치 투어 디자인'이나 시각장애인의 청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기준점 잡기, 말로 시각화하기, 공간 도면의 언어적 해설화를 실험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음성해설 쓰기'도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 교육은 편의점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공공기관, 박물관, 도서관, 은행 등으로 확장 가능한 감각적 접근성 실험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다른 워크숍과 달리, 일상의 많은 이야기 역시 또 다른 일상의 여기쯤을 고민하는 기록들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각 회차가 종료된 후 참여자와 강사진이 함께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다만, 대화의 구체적인 흐름과 일상에서의 감각들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하는 시간까지는 갖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접근성 연구'를 따로 설계해, 공간의 접근성, 음성해설, 촉각 안내 방식을 실험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성해설과 터치투어 등 사례와 전문가의 연구 등을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접근성을 기획 단계부터 통합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여기쯤'은 접근성에 대한 방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재 위치하는 여기쯤의 감각을 점검하고 고찰하여 접근성을 새롭게 사고하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따라서 현재에 대한 한계와 그로부터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가져가고자 했고, 전시 역시 대체로 불편함에 대한 감각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실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하겠다.

[비평입문] 「장애예술 비평 세미나」

과정소개

진행: 김원영(프로젝트 원영), 라시내, 최기섭(프로젝트 이인)
대상: 장애예술 창작 및 비평에 대해 실천적·이론적 관심이 있는 예술인 누구나
일정: 2025년 7월 4일(금)~8월 29일(금) *총 5회차
장소: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

장애/장애예술에 관심과 이해가 있는 연구자, 창작자들과 예술현장에서 마주하는 이론적, 실천적 물음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장애예술은 장애인권리운동 및 장애학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장애예술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은 장애의 개념, 권리로서의 접근성 등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학문적 논쟁에 깊이 닿아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장애예술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의 뿌리가 되는 논쟁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해외 문헌과 참고 영상을 보며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진행 | 김원영_프로젝트 원영

장애를 가진 창작자로서 무용과 연극작업에 참여하며, 장애와 인권, 예술과 정체성의 문제를 아우르는 글쓰기를 한다. <보철(물)로서 움직임이: 머신/어포던스/케어>(2024), <현실원칙>(2023),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법>(2019), <인정투쟁: 예술가 편>(2019·2024), <무용수-되기>(2020~2023) 등의 공연을 안무하거나 출연했다.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2024), 『사이보그가 되다』(2021, 공저), 『희망 대신 욕망』(2019),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2018) 등의 책을 출간했다.

진행 | 라시내, 최기섭_프로젝트 이인

프로젝트 이인은 연출가 라시내와 안무가 최기섭으로 구성된 콜렉티브로, 움직임 기반의 작업을 통해 언어와 몸의 관계를 탐구해 왔다. 쓸 수 없는 것을 쓰고 닿을 수 없는 것과 닿는 불가능한 가능성에 관심이 있다. 발표작으로는 <카메라 루시다>(2024), <퀴드>(2021), <무용수-되기>(2020) 등이 있다.

참여자

강민경, 권지현, 김우연, 김은설, 김정현, 김주영, 김한나, 목 소, 문영민, 배선희, 서수빈, 심지후, 양근애, 오재형, 이윤조, 전예완, 정세영, 허윤경, 현근식, 흑표범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7.4. 오후 2시~5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의 정의(定意)를 둘러싼 이론적, 실천적 논쟁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의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장애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되고 해석되어왔는지 살펴보고, 장애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에 장애인운동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고찰
2	7.18. 오후 2시~5시	접근성과 편의제공	미국 장애인운동의 성과이자 한계로서 편의제공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논의
3	8.1. 오후 2시~5시	장애정의(正義)	장애를 접근성과 편의 제공을 넘어서 인종,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와 교차하는 문제로 파악하는 장애정의의 10가지 원칙 살펴보기
4	8.22. 오후 2시~5시	접근성과 예술 실천: 공연예술	접근성을 인프라가 아닌 문화적·관계적 감수성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신스인발리드(Sins Invalid)의 활동을 검토하고, 이들이 공연예술을 통해 어떻게 접근성을 질문하고 무대를 해방적 실천의 공간으로 전환하는지 살펴보기
5	8.29. 오후 2시~5시	접근성과 예술 실천: 시각예술	팍 맥아더(Park McArthur)와 카르멘 파팔리아(Carmen Papalia)의 작업을 통해 예술적 실천이 어떻게 제도적 공간의 전환을 촉진하는지 살펴보기

세미나 현장 사진



주요 세미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의 정의(定意)를 둘러싼 이론적·실천적 논쟁

읽기 자료: 새뮤얼 바겐스토스, 『법과 장애인권리운동의 충돌』(2009).

발제 내용: 1세대 장애인론을 살펴보면, 애초 사법 분야에서 시작된 장애와 접근성에 관한 논의가 예술 분야로 확장된 맥락을 이해함

주요 토론 내용

- 장애 이론에서 의료 모델, 사회 모델, 1세대와 2세대의 특징 등 관련 개념에 대한 질의응답 및 2세대 이론의 정치적 한계에 대한 토론
- ADA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러한 틀이 예술 분야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장애예술 지원 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접근성과 편의제공

읽기 자료: 새뮤얼 바겐스토스, 『법과 장애인권리운동의 충돌』(2009).

발제 내용: 미국장애인법을 위시한 장애 차별 법제의 핵심이 되는 편의 제공 의무의 특성 및 한계

주요 토론 내용

-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 접근성을 시도했던 다양한 경험이 공유됨. 단순히 예술 작품의 현장에서 접근성을 제 공함을 넘어, 예술 창작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성이 실현되는지, 창작자의 감각, 윤리, 미학, 협업 구 조는 접근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깊이 있는 성찰을 들여다볼 수 있었음.

장애정의(正義)

읽기 자료: 리아 락슈미 피엡즈나-사마라신하, 『가장 느린 정의: 돌봄과 장애정의가 만드는 세계』(2018) / 신 스인발리드, 『피부, 이, 뼈: 장애정의 입문』(2016)

발제 내용:

- 『가장 느린 정의』를 중심으로 장애정의(disability justice) 운동의 철학과 실천을 살펴봄. 장애정의는 ‘차별 없 는 세상’을 이상으로 설정하기보다, 이미 ‘망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나 아갈 수 있는가를 질문함

주요 토론 내용

1. 접근성과 돌봄: 집단적 접근성과 상호의존의 난제
 - 돌봄이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제도화될 필요성에 대한 논의함. 장애인 고용 의무화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공공기관이 접근성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고 법적·제도적 장치 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2. 예술적 실천과 예시적 정치: 공연예술의 가능성과 한계
 - 공연은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공동체 경험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자 예시적 정치(prefigurative politics)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 토론을 진행. 공연은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열어주는 장이 될 수 있다고 공감 하면서도, 현실과의 간극이 분명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3. 제도적 책임과 공공성: 기관과 법의 역할
 - 대부분의 참여자는 접근성을 개인의 노력이나 예술가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관과 공공 영역의 구조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

4. 비평의 역할과 예술 운동의 관계

- 예술적 실천이 단순히 운동의 도구로 환원되지 않고, 예술성과 정치성을 동시에 구현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의견

접근성과 예술 실천: 공연예술

읽기 자료: 셰이디 카파이, 『크립 친족성: 신스인발리드의 장애정의와 예술 액티비즘』(2021)

발제 내용: 미국의 공연창작집단 신스인발리드의 정치적, 미학적 실천의 이념인 ‘크립타임’을 다룸. 크립타임은 ‘치유적 시간’ 개념에 맞서, 장애인의 삶에서 경험되는 지연, 비동시성, 느낌을 단지 결핍이 아닌 다른 시간 경험 으로 구성하고자 함

주요 토론 내용

1. 신스인발리드를 비롯한 동시대 예술담론의 이념적 한계와 개념에 대한 논의
 - ‘크립타임’을 비롯한 각종 새로운 영미권의 조어들이 한국사회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며 얼마나 전복적 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2. 신스인발리드의 작품에 대한 의견들
 - ‘극장’이라는 공간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해방적/전복적 힘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극 장’ 자체가 아니라 극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음이 지적됨
 - 마치 집회에서 이뤄지는 문화공연 같은 느낌과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보임

접근성과 예술 실천: 시각예술

읽기 자료: 엘리스 웨슬러/존 더비, 『동시대 예술과 장애학』(2019)

발제 내용: 타라네 파젤리, 「현재의 수령 안팎에서의 접근성」, 카르멘 파파리아, 「새로운 접근성을 위하여」, 두 개의 글을 중심으로 전시공간(미술관 등)이 직면한 접근성 물음과 이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전시 및 퍼포먼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공유

주요 토론 내용

- 접근성 등 장애예술에 관한 제반 실천에서 장애인의 행위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 가능할지를 논의함.
- 한국의 장애예술은 공공지원에 압도적으로 기대고 있음. 이 지원을 비판삼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지원제도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민간’의 영역에서 실천 역시 요구된다고 보임
- 장애예술과 정치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지만, ‘해방’을 위해 하는 작업이 실제로 자기검열을 강화하거나 장애인 창작자는 ‘장애인을 대표’하여 어떤 창작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박을 가지기 쉬움. 따라서 이를 직면하며 작가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전문가 리뷰

장애예술의 ‘접근성’을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다루지 않고, 제도적, 실천적, 이론적 측면에서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수업이었다. 여기에 더해 창작자들의 현재 상황, 품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 피상적인 이론을 접하는 수업으로만 머물지 않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수업과 자신의 작업 과정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유해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접근성을 배리어프리를 강조한 공연예술에 한정하여 설명하지 않고, ‘장애 정의’라는 개념과 함께 살펴본 지

점이 이 수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세미나의 시작을 장애 정의와 접근성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마지막으로 '접근성'에 대한 탐구를 자신의 삶과 예술 작품 안에 녹여낸 타라네 파젤리의 발표 자료를 이용해 끝낸 구성이 훌륭했다.

이 수업은 '장애예술 비평세미나'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개별 작품에 대한 비평보다는 앞으로 작품들을 창작하거나 분석하는 데 있어 필요한 비평적 언어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고 있다. 수업은 비평 언어가 가능한 토양을 다져가는 과정이었고, 목표에 맞게 충실하게 진행되었다. 앞으로 수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점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필로그

이번 과정은 신청 당시부터 관심이 높았는데, 현장에서도 5회차 모두 15인 이상이 참여하며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사전에 제공한 대화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경우, 연구자가 아닌 경우 다소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대다수 참여자는 이를 숙지하고 세미나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장애가 있는 비평가, 창작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가는 국면을 볼 수 있었다.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 발언에 중요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태도 역시 인상 깊었는데, 반대로 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의 경험과 견해에서 비롯되는 차이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그에 수반될 수 있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짚어내는 대화가 가능할 것인지는 추후 더 생각해 볼 문제라 하겠다. 그럼에도 이번 세미나와 이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서 이뤄진 대화들은 더 발전적인 장애 예술 '담론 공동체'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했다.

동시대 소수자 예술, 정치적 실천은 영미권에서 개발된 개념과 용어에 깊이 의존하고 있고, 이번 세미나에서도 불가피하게 영미권 자료를 번역해 읽고 숙의하는 시간이 길었으므로, 그와 같은 개념에 대한 상호이해, 비판적 검토, 새로운 개념에 대한 천착 등의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점도 고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지식 및 경험의 차이와 통역을 통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전제 아래, 참여자 각각의 배경지식의 차이, 수어/문자통역에서 발생하는 간격과 오차 등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 학술적인 용어가 포함된 채 효과적인 대화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평 LAB

[비평실습]

「장애예술 연극 비평 워크숍」

과정소개

진행: 양근애, 유연주(보조강사), 김지수(특강강사)

대상: 장애연극 비평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 장애연극을 통해 연극 미학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일정: 싶은 예술인, 다른 언어로 연극을 비평해보고 싶은 예술인
2025년 9월 30일(월)~10월 17일(금) * 총 9회차

장소: 모두미술공간

장애연극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장애연극에 대한 비평은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 연극은 뭔가 다르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면, 기존의 언어가 구성되는 틀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장애연극이 무엇인지, 기존의 연극과는 어떻게 다른지 고민하며 비평의 언어를 탐색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기존 장애연극 비평에서 작동해 온 비장애중심주의적 언어와 비평의 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와 연극, 장애와 극장의 관계를 토대로 장애가 재현의 대상이나 문학적 은유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의존의 권리를 가리키는 힘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장애연극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한 장애의 몸-마음, 시선의 전복, 재현의 윤리, 고유성, 치유 담론, 돌봄, 불구의 정치 등 장애연극을 비평하기 위한 개념과 이슈들을 살펴보고, 참여자들은 장애연극을 바라보는 관점을 점검하고 자기 수용의 방식과 대면하면서 장애연극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비평문을 작성해 본다.

진행 | 양근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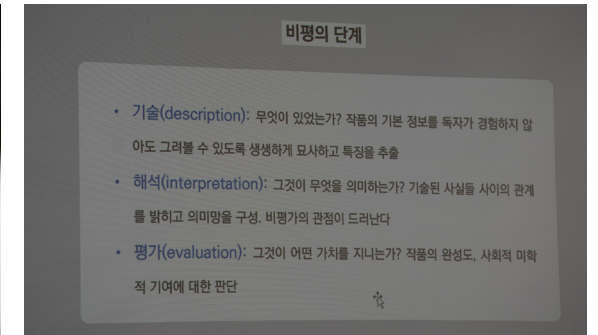
연극평론가이자 드라마투르그로 활동하며 극장 안팎을 넘나드는 감각과 언어를 포착하고자 한다. 비장애중심주의를 재전유-탈전유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글을 쓴다. 「다른 몸들, 복수의 언어, 감각의 분별」(2021), 「드러냄과 머뭇의 미학적 실천-장애 예술의 지금-여기」(2022), 「장애연극의 시간성과 극장 바깥의 연극」(2024), 「장애연극의 접근성과 재현의 딜레마」(2024), 「『돌봄 수행』 관점에서 본 장애연극—〈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일+일+일=삶〉을 중심으로」(2025) 등을 썼다.

참여자

김명화, 김송미, 김우연, 김은정, 박수빈, 방혜영, 배규진, 이민서, 이서연, 이영실, 이지민, 임종우, 장수아, 장윤정, 정유미, 차미경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10.17. 오후 2시~5시	장애와 극장, 장애와 연극	- 장애연극 창작·관람 경험 공유 및 장애연극 비평의 난점에 관한 토의 - 장애연극의 개념과 미학 - 접근성의 정치성과 윤리성 - 장애연극 비평의 관점과 가능성
2	10.24. 오후 2시~5시	장애 재현의 윤리와 딜레마	- 장애 재현의 사례와 문제점에 관한 토의 - 아토 퀘이슨(Ato Quayson)의 '미학적 불안감'에 제시된 장애 재현의 유형 검토 - 참여자들이 제안하고 싶은 장애 재현의 유형에 관한 논의 - 장애연극 비평의 주제 구상과 소개
3	10.31. 오후 2시~5시	장애연극의 고유성과 '몸'	- (특강) 장애 배우의 몸과 정체성 - 극단 애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 질의응답을 통해 장애연극의 비평 가능성 탐색 - 장애연극을 보는 시각의 문제들과 경험 공유를 토대로, 비평 주제 구체화하기 - 장애와 '몸'에 관한 저술 소개 및 검토
4	11.7. 오후 2시~5시	치유 담론의 해체와 돌봄의 수행	- 장애와 치유의 관계에 대한 생각 나누기 - 돌봄·사랑·장애의 관계 재배치 - 치유 담론의 비판과 해체 - 비평의 단계 점검과 비평 계획 발표 및 토론
5	11.14. 오후 2시~5시	'불구'의 상상력 능력주의	- 장애의 미래와 '불구'적 상상력에 관한 논의 - '능력주의'의 문제점과 공연 관행, 제작 관습, 연극 재현에 내면화된 능력주의 - 비평 쓰기를 위한 질문지 검토 - 모두예술극장 <라스트 호프> 단체관람
6	11.21. 오후 2시~5시	장애연극의 역량과 비평의 의미	- 모두미술공간 <미술관에 VVP가 뜬다!> 관람 - 공연에 관한 참여자들의 감상 공유(<라스트 호프>, <미술관에 VVP가 뜬다!>) - 장애연극 비평 합평회

워크숍 현장 사진



주요 워크숍 내용

1. 장애연극과 접근성

- 토론

• 참여자들은 자기소개 후 장애연극 경험을 공유하고, <고도를 기다리며>, <인형의 집>, <오레스테이아> 등을 장애연극으로 인식한 이유를 논의함

• 왜소증·다운증후군 배우의 출연 등 장애의 재현 방식과 장애연극의 특징, 장애연극 비평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함

• 비평·리뷰 경험을 나누고 '당사자성', '감각', '고유성', '장애서사' 등 주요 개념을 공유함

- 강의

• 장애인연극과 장애연극의 개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 접근성을 미학적 재료이자 정치·윤리적 태도로 제시함

• 접근을 시각의 행위로 보고, '누가·무엇·어디·언제·왜'의 질문을 통해 장애의 재현·공간·시간성·참여의 기준을 재사유함

2. 장애연극과 재현

- 토론

• 공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장애의 연관성을 논의하며, 새로운 무대 설치 및 의상 구입 이후 폐기의 효율성에 비해, 보관·재활용은 비효율성과 느린 시간성을 띠

• 장애 재현 사례를 통해 비장애인 배우와 장애인 캐릭터의 괴리, 대상화, 극복 서사의 문제를 검토함

- 장애 연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장애 연기의 스펙트럼과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 실재를 재현한다는 명목 아래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재현의 방식과 정치성을 질문함

- 강의

- ‘미학적 불안감’ 개념을 통해 장애 재현이 기존 미학 규범을 균열시키는 지점을 설명. 장애연극은 기존 재현 문법이 아닌, 스스로를 드러내는 형식을 모색하는 실천함
- 장애 재현의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후 ‘나쁜 장애인’, 장애 여성의 성적 욕망 등 새로운 범주를 제안, ‘모사’가 아닌 ‘상사’의 원리, 장애를 무대의 기본 조건으로 재설계하는 재현 개념을 논의하며, 비평 주제 확장을 함께 고민함

3. 장애와 몸 - 장애 배우의 몸과 정체성, 극단 애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 토론

- 참여자들은 장애연극 비평 주제를 구체화하며 각자의 관점을 세우는 방법을 논의. 내 작업이 장애연극의 범주에 속하는지, 장애를 사회의 문제로 볼 것인지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지 등을 작품 〈휴머노이드〉를 통해 검토
- 극단 애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장애 배우의 몸과 정체성을 다룸. 지체·뇌병변 장애 배우를 중심으로 구성된 극단은 고유한 신체, 리듬, 속도, 호흡을 탐색하는 반복 작업을 통해 장애 미학을 구축해 옴. 장애는 결핍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조건이자 예술적 도구로 제시됨. 장애 배우의 연기는 비장애 기준의 기술적 완성도보다 표현성, 진정성, 명확성에 가치를 둠

- 강의

- 장애 연극인의 정체성을 생활·환경·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장애연극이 기존 연극 미학과 제작 환경을 재구성하는 실천임을 강조함

4. 치유 담론의 해체와 돌봄의 수행

- 토론

- 장애를 ‘치유’와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를 논의. 장애 치유 서사가 능력주의와 결합해 현재의 삶을 유예하고, 장애를 교정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폭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검토함

강의

- 치유가 개인의 몸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작동시키는 담론임을 설명. 특히 ‘장애를 가진 현재의 삶이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치유 이후의 미래만을 지향하게 만드는 관점’을 비판, 장애를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살아 있는 존재 양식으로 사유할 필요성을 제시함
- 돌봄을 재현이 아닌 ‘수행’으로 이해하는 장애연극의 가능성을 다루며, 관객과의 감응 속에서 돌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사례를 살펴봄. 극장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돌봄을 넘어 탈극장적 실천의 가능성도 논의함

- 워크숍

- 리뷰·평론·비평의 차이를 설명하고, 기술, 해석, 평가의 단계로 구성된 비평 방법을 소개. 참여자들은 감각, 당사자성, 일상 공간의 장애연극 등을 중심으로 비평 주제를 제안함

5. 불구의 상상력과 능력주의

- 토론

- 참여자들은 발표 주제를 중심으로 장애를 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연극 〈휴머노이드〉를 사례로

논의. ‘경계선 지능’이 아닌 ‘느린 학습자’라는 명명의 의미를 검토하며, 느린 학습자의 연극 작업이 장애연극·장애예술에서 갖는 위치를 살펴봄. 연극을 통해 장애가 만들어내는 죄책감을 전환하거나 상쇄할 가능성을 〈함께 살아가기 프로젝트〉를 통해 탐색함

- 강의

- 불구(crip) 개념이 멸칭에서 당사자의 전유된 언어로 자리잡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능력주의가 비장애 중심의 기준으로 장애를 결함과 열등으로 규정하는 차별 구조임을 짚음. ‘할 수 있음/할 수 없음’, 장애의 미래, 삶의 시간 흐름, 성장과 성공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가능성을 질문함
- 불구의 시간(crip time) 개념을 통해 장애인의 고유한 속도와 리듬을 다룬 연극 사례를 살펴봄. 능력주의와 시간성, 불구의 미래성을 논의하며 장애의 미래를 비장애 규범으로부터 되찾는 상상력을 제시. 불구적 상상력은 ‘할 수 없음’이 만들어내는 지연과 실패의 의미를 사유하고, 공연 관행과 제작 방식을 재배치하는 잠재성임을 강조함

6. 합평회

- 공연 감상 공유

- 공연 〈라스트호프〉와 퍼포먼스 〈미술관에 VWP가 뜬다!〉를 함께 관람하고 의견을 나눔
- 〈라스트호프〉에 대해서는 재현과 비재현의 방식, 비재현 연극의 특징을 논의. 시각과 기억의 관계가 인상적이었으나 개인적 기억과 정치·사회적 기억의 연결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장애인·비장애인 협업에서의 비대칭성, 관객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구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의해 변화되는 서사에 대한 불편함이 의견으로 공유됨
- 반면 〈미술관에 VWP가 뜬다!〉는 장애인 배우의 능동성과 주체성, 미술관 공간을 새롭게 사용하는 방식, 다양한 감각의 공유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관객이 퍼포먼스와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인상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합평회

- 논점의 명확화, 장애예술 미학 중심의 서술, 관객의 위치를 드러내는 비평 방식, 감각과 실패를 포함한 경험 서술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진행함

워크숍 참여자 비평 문집 목차

<글이 되려는 망설임 : 장애연극을 둘러싼 비평의 시도들>

[장애라는 감각]

김우연, '본다는 것은' 이만하기도 오만하기도
이지민, 각자의 감각으로 본다는 것
이민서, 장애를 말하지 않는 장애예술: <OH!타이거>

[장애와 함께 살아가기]

장윤정, 행위로써 가능하게 되는 함께 살아가기의 가능성
이서연, 함께 살아가는 것, 장애를 말한다는 것은
김송미,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사랑은 어디인가?

[장애예술의 좌표]

방혜영, 지금은 '장애-비장애 통합 연극' 지원을 시작할 때
임종우, 장애영화, 내가 오늘날 다시 말해 보고 싶은 것

[‘장애연극 비평 워크숍’의 시간들]

유연주,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을 만나는 일
양근애, 망설임이 글이 되기로 할 때

전문가 리뷰

국내 예술생태계 안에서 장애 연극의 역사는 2000년대 이후 서서히 누적·확대되어 왔지만, 장애·젠더·퀴어 등 소수자 담론 확대가 가시화된 특정 시기 이후 급발진의 형태로 사회·제도적 인프라 확장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은 독립적인 비평 현상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지속적 창작, 발표, 관객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존 연극비평 내부의 비장애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학제 간의 토론과 연구 예열 시간이 필요했으며, 제도 면에서는 접근성 중심의 제도 확장을 선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연극 비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은 후 순위였다.

현재는 장애연극으로 특화된 제작극장의 운영과 창작 지원의 확장, 관련 분야의 담론 플랫폼 운영 등으로 장애연극의 창작 기반이 부분적으로나마 형성되어 도리어 공연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의미화해내는 비평 언어의 개발이 창작 영역과 관객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워크숍은 시의적절하다.

단, 전문 비평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발화를 촉진하는 예비 전문가·관객 양층의 다소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장애연극 개념의 공유와 비평 언어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초기 단계의 목표

로 적절해 보인다. 이번 워크숍 참가자 16명의 경우, 이론, 연출, 배우, 예술교육자 등 다양한 영역, 신진-중견 경력의 예술가들을 포함하는데 장애연극의 경우, 무대와 마찬가지로 장애 당사자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김지수 대표의 워크숍 참여처럼, 장애 유형별 창작자들이 워크숍 프로그램에 함께 결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 재현의 윤리, 장애연극의 신체, 치유, 돌봄, 능력주의 등은 그동안 비장애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인식의 발전 과정을 시사하며, 무엇보다 장애연극 비평의 경우 연극학, 사회학, 인류학, 장애학 등의 학제 간 교차 관점을 필수 전제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워크숍의 심화 과정 설계나 확장 버전을 도모하게 될 때도 최신의 장애연극 이슈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그 외에도 국내·외 장애연극의 위치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과 발전의 흐름, 장애 연극과 교차성(인종·성별·이주·계급 등) 주제가 다뤄졌으면 한다.

에필로그

연극을 보는 눈과 몸, 시간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들이 있다. 수년 전, 장애연극이 장애와 연극으로 분리되지 않고 '장애연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다가온 날이 그러했다. 그 후로 꽤 많은 장애연극을 보고 글을 써왔지만 장애연극을 제대로 설명해 냈다는 느낌, 그래서 다른 언어로 장애연극에 다가갈 수 있었다는 느낀 적은 아직 없다.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갈망이기도 한, 어쩌면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겨우 윤곽을 더듬어볼 수 있을 글쓰기를 반복하던 중, 이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만들고자 워크숍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맡았다.

첫 시간부터 참여자들이 결국 '나의 언어'로 '내가 보는 장애연극'에 관한 글을 쓰게 되리라는 예시적 암시를 강조했다. 비평의 언어를 버리는 일보다 장애에 관한 자기 생각을 점검하고 장애연극에 관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비평이라는 형식을 굳이 앞세우지는 않았다.

비평은 관람 당시의 실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생생함을 공유하는 것이 비평의 출발일 테다. 워크숍 기간, 지금 여기 장애연극을 접한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나눔으로써 우리는 장애연극의 현실을 환기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장애연극, 나아가 장애예술의 상을 그려볼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장애연극이 내게 처음 가르쳐준 것은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라는 점이었다. 장애연극에 관한 다양한 시선이 모이고 각자의 리듬이 생겨나면, 언젠가 그 공명으로 장애연극이 갈 수 있는 곳을 지금보다 훨씬 멀리 상상해낼 수 있지 않을까. 비평이라는 글쓰기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느릿느릿 기록자의 운명을 감당해 내는 일일 것이다.

[시각] 「서로가 서로의 매체되기 in 광주」

※2024년도 연속 프로그램

과정소개

진행: 문해주, 김환(특강강사)
대상: 혼자 작업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예술인들과의 교류와 협업을 고민해 본 청년 장애예술인 (*연령 제한 없음)
일정: 2025년 8월 7일(목)~8월 8일(금) *총 4회차
장소: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용지관 412호

청년 장애 예술가들이 만나 서로를 알아가며 동료로서 성장하는 예술 워크숍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 방법을 동료와 감각적으로 나누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리다.

특히 광주에서는 김환 작가를 호스트로 초대하여, 예술가로서 성장해 온 경험을 듣는다. 또한 작가의 고유한 작업 방법과 매체를 직접 사용해 보고, 서로의 몸이 되어보는 상호 연결 속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작업 가능성을 발견하며, 나아가 공동의 작업을 만들어 본다.

진행 | 문해주

사람과 사물 주변에 함께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이면의 이야기들을 작업으로 풀어낸다. 개인의 숨겨진 역사성과 보이지 않는 관계들을 설치와 조형 작업으로 시각화하며 참여자들과 참여 가능한 예술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장애를 포함한 여러 차별적 경계들 사이,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고민 속에서 예술 작업 및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은평구 발달장애인의 문화놀이터 '꿈더랜드 피터팬 클럽'에서 미술 활동을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시로 지역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참여자

김재민, 박정훈, 박은영, 반수지, 손종빈, 송영주, 임지아, 정은혜, 정현진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8.7. 오전 10시~ 오후 12시	감각의 대화 - 예술메뉴판으로 서로 소개하기	예술메뉴판을 통해 서로 간의 다양한 감각과 표현 이해 - 각자 좋아하는 것을 표현 - 서로의 감각의 표현 방법을 이해
2	8.7. 오후 1시 30분 ~3시 30분	예술메뉴판 - 내가 좋아하는 작업 재료 가져오기	'나만의 예술메뉴판' 만들기 - 좋아하는 작업 재료 공유 - 내가 잘하는, 해보고 싶은 예술 활동 기록 및 공유
3	8.8. 오전 10시~ 오후 12시	서로의 매체를 경험하기 - 서로의 작업을 탐구하고 경험하기	청년 작가 김환의 활동상 공유 및 작업 방식 경험 - 청년 작가 김환의 작업 토크 - 작가의 매체·방법·재료 경험하기
4	8.8. 오후 1시 30분 ~3시 30분	서로의 매체 경험으로 - 서로가 서로의 매체 되기	공동의 협업 및 공유 - 공동 설치 작업 및 공유 - 예술메뉴판에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동료에 대한 기대 및 소감 나누기



4회차, 예술메뉴판 만들기



4회차, 예술메뉴판 만들기



3회차, 김환 작가의 작업 방식 공유



4회차, 단체 사진

주요 워크숍 내용

각자의 예술메뉴판

- 참여자들 간에 서로의 작업을 공유해, 각자의 개별성과 고유성 발견
- 다양한 작업을 살피며 의미를 발견하고, 서로의 존재를 지지해주기

김환 작가의 경험 및 작업 방식 공유

- 장애인들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른 다양한 차이 발견
- 소수자성과 장애를 교차시켜 바라볼 수 있음
- 회화 작가로서 작업과 다양한 외부 활동 공유
- 평소 작가의 매체, 방법, 재료 등을 공유하고 공동의 작업으로 연결하기

작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공유

- 수업 중 찍은 작업 영상을 큰 모니터로 송출
- 긴 천을 바닥에 두고 진행한 공동 작업이 감상으로 연결됨

공동의 예술메뉴판

- 전체 작품의 감상을 다양한 예술로 표현
- 공동의 작품을 보며 자신만의 표현 방법으로 재해석하기
- 마지막에 작품 안에 모두 들어가, 내가 다시 작품이 되어 보기

보호자의 역할과 함께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공동 작업을 통해 서로의 작업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광주에서는 아직 그러한 공동체와 커뮤니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이후에도 어떻게 지역 안에서 그들의 만남과 예술 활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한편, 이번 프로그램이 그 시작의 단초가 되었다는 의미도 깨닫게 되었다.

에필로그

광주에서 '청년 예술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며 먼저 '광주'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지역 복지관과 비영리 장애 예술인 단체를 검색하고, 장애예술 교육을 하는 지역 예술가를 알아 보며, 지역 매개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얻고 지금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광주의 '공동의 작업실'은 시각적인 작업물을 중심으로 서로의 예술 감각을 함께 나누고, 대표적으로 김환 작가를 초대해, 작업의 매체와 작업 방법 및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가 서로의 매체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공동의 작업 안에서 나와 우리, 공동의 삶의 경험을 예술 작품으로 담아내었다. 참여자와 동반한 보호자 역시 참관이 아닌, 참여자로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가 되어 보며 예술을 통해 관계를 맺고 평등해질 수 있었고, 참여자의 경우, 수업이 점차 흐르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거나 표현하는 과정들이 늘어났다. 특히 서로에게 지지받고 응원받는 시간으로 인해 자신감이 생겨나고, 서로를 향한 긍정적인 피드백의 계기 역시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고 참여자와 보호자 모두가 다시 꼭 만나자던 약속이 한 달이 조금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자신의 그림을 직접 가져와 공유하거나 향후 어떻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지 고민 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주로 질문을 던진 장애 청년 부모님들에게서 매일 함께하는

[연극] 「감각과 초월 in 부산」

※2024년도 연속 프로그램

과정소개

진행: 민경언, 김군택(보조강사)**대상:** 배우 경험이 있거나, 무대 연기의 기본기를 배우고 싶은 장애·비장애 예술인**일정:** 2025년 11월 4일(화)~11월 27일(목) *총 7회차**장소:** 부산 금정문화회관 아르코연습실

배우 각자의 고유한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대 언어를 만들고,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며, 무대 위의 존재로서 배우가 가져야 할 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이는 배우 각자의 주관적인 감각과 생각이 연극 무대를 통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로 변화하는 ‘초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대사 중심의 정적인 연극 형식을 넘어, 움직임·호흡·표정·소리 등 배우의 모든 신체적 표현을 활용해 관객과 깊이 소통하는 무대를 탐구하고, 참여자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짧은 대본을 구성하고 감각과 내적 충동을 예술로 연결하여 자신만의 표현방식을 발견한다. 또한 긴장·습관·두려움 등 배우로서의 한계를 탐구하고 극복하는 자기 탐사 훈련을 병행하면서, 일상과 예술을 연결하는 삶의 태도까지 성찰한다.

진행 | 민경언

연극 연출가이자 커뮤니티아트랩 KOJI 대표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 연출·기획·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방위 창작자다. 주로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동시대적 개념과 형태로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청년장애예술가Lab <두 번째 집>의 예술감독으로 장애와 인간,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 중이다.

참여자

김윤정, 박철호, 최영렬, 황찬욱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OT	11.4. 오후 2시 ~ 5시 30분	오리엔테이션	- 강의 소개 및 참여자 소개 - 짧은 에세이 쓰기: 일상 또는 무대에서 연기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에 대해 기록하기
1	11.18. 오후 2시 ~ 5시 30분	무대의 정의와 배우의 태도에 대한 고찰	- 무대에 서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기 - 무대와 일상의 차이와 합치되는 지점을 살펴보기 - 나의 자연스러움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인식해 보기
2	11.19. 오후 2시 ~ 5시 30분	‘경청’: 대본 리딩에 필요한 태도 및 상대 배우에 대한 존중	- 대본 리딩 -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기 - 자연스러운 자극과 반응을 위한 통로 되기
3	11.20. 오후 2시 ~ 5시 30분	대본의 주제(‘나답게’)에 대한 고찰 및 대본리딩	- 모든 작품에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고찰하기 - 움직임을 통한 연기와 대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4	11.25. 오후 2시 ~ 5시 30분	대본의 이해와 움직임	- 대본의 내용을 동선으로 풀어보기 - 인물과 하나 되어 보기
5	11.26. 오후 2시 ~ 5시 30분	무대 위의 진실	- 배우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고찰하기 - 언어 이면에 존재하는 장면의 이념에 대해 이해하기
6	11.27. 오후 2시 ~ 5시 30분	무대 작업과 촬영	- 본 대본이 어떻게 무대화되는지 체험해보기 - 촬영을 통한 피드백



6주차 워크숍, 민경언 강사



3주차 워크숍



6주차 워크숍, 민경언 강사의 무대 촬영 장면



6주차 워크숍, 참여자들이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

주요 워크숍 내용

무대 위 존재 방식을 위한 연습

- 무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이고, 배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로, 메시지는 개인의 사사로운 것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적 속성을 가짐
- 무대 위에 존재하는 배우는 공적 존재로서, 일상과 달리 무대를 위해 준비된 자들이어야 하며, 배우가 훌륭하지 않으면 메시지는 휘발되어 버림
- 훌륭한 배우로서 무대 위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
- 자신의 한계를 만들었던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기

배우의 내적 충동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무대 언어를 모색

- 내적 충동과 연관된 모든 요소(움직임, 표정, 소리 등)를 활용하여 관객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무대 언어를 탐구하기
- 표현에 있어 무의식적인 행동의 발현 양상을 탐구하고 분석하며, 의식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위한 연습
-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습관, 심리적 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신체적 긴장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찾아 펼쳐내기
- 일상의 언어가 아닌, 정제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무대 언어를 구사하기 위한 연습
- 무대라는 새로운 시공간으로부터 오는 긴장과 표현을 관장하는 몸의 근육들에 대한 운용이 충돌하지 않도록 연습

참여자의 이야기로부터 발전된 대본

- 본인에게 주어진 삶과 함께, 무대에서의 한계 상황을 초월하고자 하는 데 있어 본인의 실천을 기록하기
- 공통적으로는 '나답게' 살고자 하는 것과 그와 관련된 방법에 관한 점이 도출됨
- 공유되는 지점과 차이가 있는 지점을 충돌시켜 등장인물의 성격을 구축하는 한편 갈등의 요소를 구성

구체적인 대본 분석과 연습

- 대본 전체의 맥락과 참여자 본인이 맡은 등장인물에 대해 이해하기
- 감정을 생성하는 호흡과 함께 말로 뱉어내기

- 무대 위 움직임과 동선의 생성 원리에 따른 대본 읽기

기록 촬영의 형식을 경유한 결과 산출

- 쇼케이스 형식의 결과 대신에, 연습의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으로서 기록 촬영을 선택
- 연습이 어떠한 무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연습 과정 전반을 피드백하기

시놉시스

세 명의 인물이 무대 위에 등장해 각자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며 전개된다.

교차로에 서 있는 두려움, 타인의 시선 앞에서의 분노와 체념, 배려와 양보라는 이름으로 밀려났던 순간들이 인물들의 말과 침묵, 움직임을 통해 교차한다.

이 작품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의 언어와 몸으로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대본

무대에 등장한 배우들 모두 ‘나답게’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가며 움직인다.

윤정 나답게?

찬욱 나답게?

철호 나답게?

영렬 나답게?

(중략)

영렬 배려받고 양보받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 나도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고 하나의 인격체라구.

(중략)

윤정 다들 그만 좀 해. 남들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중략)

철호 마음을 열어. (...) 아마 그럼 보일거야. 나도 타인도.

(중략)

찬욱 지금도 난 교차로에 서 있을 때 너무 무섭고 두려워. 길을 나서면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곳이야.

거길 넘어서지 않으면 어디든 갈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힘들어질까 봐 나도 피하는 것 같아.

(중략)

에필로그

올해 모든 참여자는 언어를 이해하고 쓰는 것이 가능한 조건이어서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참여자들의 표현 양식과 가장 부합했다. 다만 배우로서 입문 단계에 있는 참여자들에 맞춰 교육의 난이도를 낮추어 진행하였다. 먼저 자세한 대본 분석 단계에서는 분석을 동반한 3차례가량의 리딩을 진행했고, 이후 이해한 텍스트를 감정이 생성시키는 호흡과 함께 말로 뱉어내는 단계로 나아갔는데, 끊어 읽기, 강세, 어미의 높낮이 등에 있어 감정과 동떨어진 표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배우의 화술은 감정에 충실해야 하고, 감정에 거짓이 없어야 호흡 역시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연기적 토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움직임과 동선을 통해 대사를 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대본의 경우, 참여자 본인의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 만들어져서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일상의 언어와 다른 무대 언어를 구사하는 데는 분명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연극 경력이 길지 않거나 아마추어 연극 단체에서의 경험이 전부였는데, 결과적으로 호흡을 살린 화술로써 감정을 잘 전달하는 치밀한 연기 방식을 그 전에 경험해 보지 않아 각 개인으로서 화술이 전적으로 연기에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물론 이는 본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배우 스스로 놓치지 않고 계속 수양해야 하는 배우의 숙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감각과 초월’은 배우의 고유한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대 언어를 만들고, 연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실험이자 무대 위의 인간인 배우로서 가져야 할 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올해 참여자들은 아쉽게도 실천의 결과로서 무대 쇼케이스 공연까지를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만났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들이 앞으로 지역에서 예술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프로젝트 LAB | 해외 협력

「(미국)브로큰박스 마임씨어터 - 움직임의 서사 : 비언어적 연극 만들기」

과정소개

- 진행:** 브로큰박스 마임씨어터(베키 바움월, 타샤 밀크먼, 맷 잠브라노)
대상: 음성언어가 아닌 몸, 공간, 사물을 활용한 비언어적 서사에 관심이 있는 장애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과 함께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협업하고자 하는 비장애 예술인
일정: 2025년 9월 30일(월)~10월 17일(금) * 총 9회차
장소: 모두예술극장 스튜디오

배우, 연극 창작자, 작가, 혹은 신체 표현에 관심 있는 예술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창작 워크숍으로, 몸을 강력한 스토리텔링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유쾌한 방식으로 탐구한다. 브로큰박스 마임씨어터(Broken Box Mime Theater)의 신체적 서사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참가자들은 말없이도 손, 얼굴, 몸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수행한다. 그룹 워밍업, 마임의 표현법 익히기, 협업 게임,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작 과제가 어우러진 구성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에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말없이 즐기고 발견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표현력을 키우고, 은유와 이미지에 대해 탐색하며, 다른 예술가들과 협업하였다.

진행 | 브로큰박스 마임씨어터(BKBX, Broken Box Mime Theater)

브로큰박스 마임씨어터는 2011년 뉴욕에서 창단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독창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현대 피지컬 씨어터 단체로, 상상력의 힘과 다양성을 지닌 팀의 집단적 예술적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대 관객을 위한 매체로서 마임을 새롭게 상상하고 미국 연극의 시선으로 그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 브로큰박스 마임씨어터는 뉴욕 이노베이티브 시어터 어워드(New York Innovative Theatre Awards)에서 최우수 앙상블상(2014), 최우수 퍼포먼스 아트상(2016) 등을 수상하였으며, 케임브리지 대학교, BRIClab, 윌리엄스타운 시어터 페스티벌, 뉴욕 청각장애인 극장, MTV, 스티븐 콜베르트 쇼(The Tonight Show), 맨해튼 미니 스토리지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연과 프로젝트의 폭을 넓혀왔다.

참여강사

베키 바움월(Becky Baumwoll) :
브로큰박스 창립자이자 BRIClab·ITAC 선정 아티스트로,
작품 연출과 예술교육 현장을 넘나드는 리더이자 예술감독이다.

타샤 밀크먼(Tasha Milkman) :
셰익스피어 글로브 등 주요 극장 무대에 선 배우이자
브로큰박스 공동창립자로, 연극·심리를 전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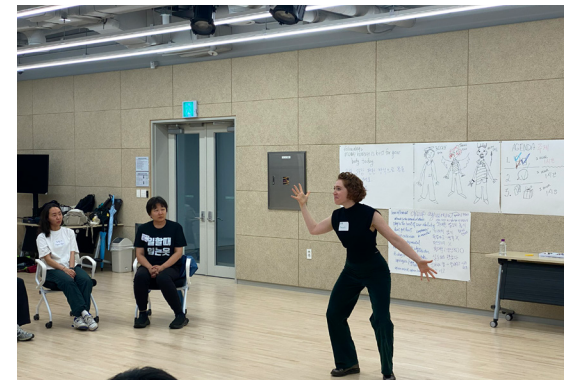
맷 잠브라노(Matt Zambrano) :
미 전역 주요 극장서 활약한 브로큰박스 멤버로,
NTC 출신 라티노 배우이자 마임 아티스트이다.

참여자

김미림, 김영준, 김우경, 문동호, 박지영, 방혜영, 서영은,
손청, 여진우, 오김수희, 윤철현, 임미경, 임지윤, 조현서, 현림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OT	9.30. 오전 10시~ 11시 30분	오리엔테이션	온라인에서 교육 방향과 내용 설명 및 참여자 소개
1	11.18. 오후 2시~ 5시 30분	환영합니다!	서로를 초대하는 시간 - 양상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게임과 몸풀기 활동을 통해 함께 움직이고 교감하기 - 참여자 각자의 예술적 호기심, 현재의 작업, 아이디어를 나누며, 이번 워크숍에서 어떤 것들을 함께 탐색하고 싶은지 상상해보기 - 본능적인 신체 언어, 비언어적 놀이, 종이 위의 시각적 맵 만들기,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및 토론 마임의 기본 요소를 배우며 놀이(대부분의 활동은 언어 없이 진행) - 손, 얼굴, 몸을 주요한 스토리텔링 도구로 활용해 준비운동 및 기본기 익히기 -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과 공간을 구축하며 관객의 상상력을 초대하는 기술 배우기
2	10.14. 오전 10시~ 오후 1시	신체 스토리텔링 기초 - 마임 101	캐릭터, 감정, 변화 등을 탐색하는 게임에서, 개인, 소그룹, 전체 양상블 단위로 스토리 만들기 수행 - 이전 수업을 바탕으로 표현의 도구를 더 깊이 탐색 - 얼굴 표정과 몸의 자세를 창의성과 표현의 무한한 중심으로 삼아 연습
3	10.14. 오후 2시~ 5시	신체 스토리텔링 도구	

4	10.15. 오전 10시~ 오후 1시	메타포 프로젝트	신체 스토리텔링 도구들을 충분히 탐색한 후, 시각적 시(visual poetry)를 활용해 창작하기 - 간단한 제시어를 통해 각자의 경험이나 관찰에 연결되는 이미지 만들기 - 아이디어를 수집한 후에는, 우리가 고른 메타포를 마음을 통해 무대 위에 구현해 보기
5	10.15. 오후 2시 ~5시	그룹 창작 제시어	이야기의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키기 - 다양한 창의적 게임을 통해 의미 있는 이미지를 발견하고,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 기록 - 이후 발전시키거나 정교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어 가기 4~5차 과정에서 발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창작 기법과 연습을 통해 이야기를 다듬고 발전시키기
6	10.16. 오전 10시 ~오후 1시	협업 창작 메뉴 (Collaborative Creation Menu)	- “무엇이 더 있을까?”, “왜?”, “어떻게?”와 같은 질문을 던지기 - 이전 수업에서 시작한 작업을 이어가거나 새로운 방향을 찾거나 개인 작업으로 솔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
7	10.16. 오후 2시 ~5시	내부 공유 및 피드백	외부 공유를 위한 작업 구성 - 무엇을 공유할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어떤 과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함께 고민 - 내부 리허설과 피드백을 통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
8	10.17. 오전 10시 ~오후 1시	공유회	프로그램의 내외부 관계자, 지인에게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선보이고 공유



브로큰박스 마임씨어터 팀의 강의 장면



참여자들과 강사가 함께 장면을 구성해 보는 장면



날말카드를 활용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장면



참여자들과 초청자들에게 과정 공유회를 설명하는 장면.

주요 워크숍 내용

보이지 않는 사물

- 연극이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라면, 마음은 사물에 대한 상상에 몰입하는 것으로, 이때 실제 사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사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관객의 상상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집중을 강화하며, 의인화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제작비와 공간적 제약 역시 최소화할 수 있음. 마음에서 관객은 배우의 몸짓을 수용하며 표현의 절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존재임
- 제시어를 활용해 부엌의 물건을 상상하고, 걸어가면서 표현함. 조명이 켜지면 정면을 보며, 한 번 깜박일 때 상상한 사물로 변신하고, 다시 깜박이면 나로 돌아오되 일부 특성이 남은 상태를 유지하기. 여기서 시선은 사물의 성질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핵심 요소로, 관객이 어디를 봐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하는 기능을 함

모양과 시선에 관한 게임

-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진행자가 한 사람을 지시하면 자세를 바꾸어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교체, 완성된 마지막 장면을 미술관의 작품이라고 가정하고 제목을 붙여보는 시간을 가짐. 참여자들은 ‘머리 마사지’, ‘암살’, ‘푸들 저리 가’, ‘왕’ 등 다양한 제목을 제시함
- 이후 상황을 바꿀지, 인물을 바꿀지 선택하여 장면을 다시 이어가는 변형 활동을 진행. 두 사람 중 한 인물로서 새로운 자세를 취하거나, 연출가의 관점에서 두 사람 중 한 명의 자세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확장 활동을 수행함

퍼포먼스 만들기 과정 - 두 사람이 한 장면 만들기

- 마음은 배우의 연기가 관객의 스토리를 촉발하는 점, 보이지 않는 이면을 상상하게 하는 힘 등이 있으며, 극장은 크기와 질감이 이미 주어진 공간이지만, 마음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고, 다양한 기법에 따른 감정적·묘사적 차이를 가져옴
-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 사람이 먼저 공간 안에서 환경을 구축하고, 하나의 사물을 표현하며 행위를 일정 시간 유지하고, 이후 두 사람이 그 행위를 함께 분석함
- 다음 단계에서는 시선, 사물, 환경, 인물의 목적, 활동과 행동을 모두 활용해, 두 사람이 함께 장면을 구성함

메타포를 변주하기

- 참여자 중 윤철현은 기억상실을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는 상황”으로 표현하고, 임미경은 가족의 죽음을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것”으로 비유해 표현함
-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 하나의 스파크에서 나온다.”라는 문장을 기반으로 변형 실습을 진행, 단어 ‘상실’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추락, 얼음, 생일파티 등의 다양한 변형이 시도됨

전문가 리뷰

브로큰 박스 씨어터의 사전 리서치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장애예술과 예술가들의 정보를 얻고자 했던 노력과 실제 워크숍에서 열성을 다하는 태도 등이 인상 깊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소개와 함께,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장소를 이야기하여 처음 만나는 참가자들 간의 정서적인 교류를 도울 수 있어 좋았다. 3차 수업에서는 표정으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표정과 같은 상태의 몸을 상반신, 하반신, 몸 전체로 확장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연습해 나갔는데, 이때 짝공을

정하거나 공동체로 게임을 진행해 개인 발표의 불편함 없이 모두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젠더, 장애, 신분 등의 고정관념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 또한 인상적이었다.

공유회에서, 참여자들은 “강사들이 연구하고 노력해 온 모든 것을 나누어주려는 의지가 보여서 감동적이다,”, “말이 아닌 언어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기쁘다,”, “몸으로 표현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고 낯설었는데, 오히려 말보다 더 솔직하고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수어”를 문학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농인들은 “이 워크숍에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표현의 방법을 얻는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참여자들의 구성 면에서 장애 예술가들보다 비장애 예술인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지체 장애인 참여자가 1명뿐이었는데, 휠체어, 클러치, 뇌 병변, 시각 등 더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함께했다면 한층 풍성하고 다층적인 소통과 마음의 방법 역시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신체를 이용하는’ 마음의 특성상 일부 유형의 장애인들이 참가 신청에서 심리적 장벽을 느낀 건 아닐까 한다.

에필로그

워크숍은 말없이 동작으로만 의사소통하며 연극 놀이를 하거나 움직임을 만들거나 마음을 배워보는 수업들로 진행되었다. 매회 참여자들은 홀로 또는 그룹을 이루어 하나의 짧은 퍼포먼스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고, 그날의 과정을 피드백하며 마무리했다. 수업에서 진행된 움직임과 짧은 퍼포먼스들은 점차 고도화된 퍼포먼스로 발전했고, 자연스럽게 최종 과정 공유에서 선보일 작품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창작 수업을 넘어, 언어를 초월한 예술적 만남과 깊은 문화 교류의 장으로, 한국 측의 세심한 준비와 운영 덕분에 강사진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철학과 커리큘럼을 온전히 펼칠 수 있었고, 참여자들은 몸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마주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무언의 연극이라는 독특한 장르 속에서 농인과 청인, 다양한 배경의 예술가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고, 서로의 감각과 리듬을 존중하며 협업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 깊었다. 수어와 보디랭귀지, 시각적 메모와 감각적 상상력이 오가는 동안, 이 워크숍은 하나의 ‘공통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냈다.

강사진에게도 이 경험은 예술가로서의 성찰과 성장의 계기였다. 특히 장애 예술에 대한 접근, 농인 예술가들과의 협업 방식, ‘접근성’에 대한 실천적 고민 등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더욱 풍부해졌고, 워크숍 이후에도 그 안에서 비롯된 질문과 가능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참여자들의 반응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창작에 막혀 있던 지점을 넘어섰다는 고백, 개인적 트라우마를 신체 은유로 승화시킨 경험 등을 통해, 이 워크숍이 예술을 넘어 치유와 자기 확장의 통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지 몇 편의 퍼포먼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작 공동체의 시작점을 함께 세웠다. 이 워크숍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협업과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프랑스)극단 카탈리즈 - 창작워크숍 : 새로운 정부」

과정소개

진행: 극단 카탈리즈
총괄: 캐서린 하그리브스(Catherine Hargreaves)
워크숍 공동 진행: 에밀리오 르 타로(Emilio Le Tureau), 트리스탄 칸탱(Tristan Cantin)
지원: 레슬리 식스(Leslie Six), 에르완나 프리장(Erwanna Prigent)
대상: 공연·시각·문학·영상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예술적 실천에 관심이 있는 장애·비장애 예술인
일정: 2025년 6월 23일(월)~6월 27일(금) * 총 5회차
장소: 이음센터 이음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정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본다. 이는 법은 그 어원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 적응되어 나가는 것으로, 다양한 존재 방식으로 장애를 바라보며, 그 모드를 포용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먼저 나의 감각과 움직임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과 공간을 느끼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상상해 본다. 그리고 서로 다른 몸이지만, 누구나 몸을 가지고 있다는 보편적 사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며, 각자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본다. 모두가 함께 무대에서 글을 쓰며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한 편의 공연이 되는 시간을, 또 빠른 사람도, 느린 사람도 편안함을 느끼는, 각자의 속도가 존중받는 환경을 꿈꾸어 본다.

진행 | 극단 카탈리즈(Catalyse)

발달장애인 배우들의 다양한 워크숍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극단으로, 예술과 창작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기조 아래, 40년간 꾸준한 작업을 이어오며, 아비뇽 페스티벌 등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2021년 설립된, 예술과 창의성에 대해 보편적 접근성을 사회적 과제로 하는 프랑스 '국립적응창작센터 CNCA(Centre National pour la Creation Adaptee)'에서 상주 단체로 활동 중이다.

참여자

김은현, 김현우, 서인혜, 송윤경, 오지영, 여명지, 전영신, 주승미, 최희범, 현 림, 홍서연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6.23. 오후 2시~6시	포괄적 창작을 위한 탐색	상상과 놀이를 통해 공동체적 감각 열기 - 3025년, 미래 정상회담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상상하기 - '새로운 정부'의 구성원 되어 보기 - 서로 간의 공통점·이상·차이를 기반으로 이야기 나누기
2	6.24. 오후 2시~6시	공동 창작 방식 찾기 (오픈 워크숍)	침묵과 몸의 리듬 속에서 포용적 창작 환경 탐색 - 제약 없는 협업의 조건 및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 가능한 환경 구성 - 카탈리즈의 지난 작업들과 그 작업 방식 공유
3	6.25. 오후 2시~6시	작품 탐색과 즉흥극 실험	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 자신의 정체성을 10개의 단어 및 움직임으로 소개 - 원형 대열에서 리더십 순환 훈련 - 즉흥 발표와 공유로써 각자의 독창성과 몸의 언어 강화
4	6.26. 오후 2시~6시	인터랙티브 공연 창작	연결성 기반의 퍼포먼스 공동 구성 - 다양한 속도의 이동 및 집단적 시선의 훈련 - 개별 이미지와 사운드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설치물 구성 -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순환하는 구성에서 개개인의 영향력을 고양시킴 - 각자가 음악과 신체를 연결해 무대·공간의 의미 탐색
5	6.27. 오후 2시~6시	최종 피드백	'새로운 정부'에 보내는 편지 - 개인의 목소리를 사회적 메시지로 전환 - 포용성, 이동권, 예술교육, 언어와 문화 간 차이 등 실생활 이슈에 대한 상상적 접근 시도 - 변화된 감각에 대한 피드백과 공유



5주차 수업, 참가자 한 명이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를 읽고, 나머지 사람들이 경청하며 반응해 주는 장면



5주차 수업, 외계인에게 지구에서 보기 싫은 것에 대해 소개하는 메시지를 읽는 장면



5주차 수업 중, 극단 카탈리즈의 연출가 캐서린 하그리브스
(Catherine Hargreaves)가 참여자들에게 진행 방식을
소개하는 모습



5주차 수업에서 짝을 지어 상대방의 신체 한 부위를 선택해
그의 모습을 그려주는 모습

주요 강연 내용

침묵의 접근(Silent Approach)

-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공연을 전제하여 모두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과 동작으로만 모든 걸 하는 접근법으로, 공연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함
- 언어 없이, 침묵 속에서 몸을 풀고, 리더를 교체해 가며 그룹 작업을 진행해, 서로에게 더 경청하고 집중하게 되며,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있음을 인식하게 됨

몸으로 맞추는 단어 연상 게임

- 한국어와 프랑스어 사용자가 짝을 지어 교대로, 상대방의 단어를 듣고 즉각적으로 몸으로 표현하기. 단어 자체가 갖는 느낌과 모국어와 연결 지어 연상되는 개념, 감각 등을 도출하여, 언어의 한계를 넘어 언어의 또 다른 가능성을 실천하며 상호 대화와 표현을 수행함
- '~은/는 이게 아니라, ~은/는 이거야.' 안에 하나의 단어를 집어넣고 발화하며, 상대방이 표현한 것을 뒤집고 새로운 정의 만들기. 둘씩 마주한 가운데, 하나의 문장과 그에 따른 다른 움직임을 계속 교환하며 하나의 흐름을 이어 감
- '모든 사람이 이 사람처럼 ~한다' 안에 하나의 단어를 넣어 행동을 완성하면서 그 행위의 주체를 지정하면, 그 주체의 해당 행위에 맞춰 모든 참여자가 움직임. 지목된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을 마치고 다음 행위자를 지목하며 이어 나감

특별한 연합 만들기

-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두 특징에 따라 동그라미·네모 공간 중 하나에 위치하는 놀이 진행. 이동 중에 서로를 마주하면서 이동하기.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짝을 선택하여 두 사람씩 '특별한 연합' 구성함
-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협업과 협력의 가능성 공유하는 가운데, 집단의 관계에서 벗어나 여러 개의 '우주'가 생성되는 가능성을 찾음

외계인을 맞는 미래 정상회담

- 참여자 각자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상상함
- 1977년 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실은 보이저호를 모티브로 하여, 지구 소개 멘트 작성 및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 추천함
- 우리에게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외계인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10개의 단어를 선택해 표현. 그 10개의 단어가 일종의 큰 축에서 각자의 개인 서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음. 이때 상대방을 외계인으로 상정해 마주 보면서 표현함으로써 소통의 정도를 높이고, 자신의 긴장과 부담감 역시 내려놓도록 함
- 외계인에게 보내고 싶은 조각상 이미지 상상함
- 외계인에게 지구인이 가진 특성을 자세 개의 이미지 혹은 음악으로 설명함
- 외계인에게 네 가지 주제를 담은 편지 쓰기. 지구의 좋은 것, 보기 안 좋은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적음

공동의 정부 구성하기

- 정부에 자신의 불평을 털어놓는 편지를 쓰고 읽으며, 해결책으로서 제도 마련 및 개선을 요구하고 촉구함.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출발함으로써 기발한 정책과 아이디어, 기존의 제도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소하면서도 긴급한 의제들이 포함됨
- '내가 대통령이라면/내가 권력이 있다면 ~할 거야'에 동사 혹은 형용사를 넣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혹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를 이어 나감
- '~은/는 ~을 하기/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필요해!'에 각각 참여자 한 명의 이름과 단어를 넣어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로 호명함

전문가 리뷰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과정은 자신의 취약함으로부터 연장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서 그 사회에서 발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서로를 마주하게 했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를 고취하는 한편,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이 그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넘어 사회적 차이를 드러내고, 다양성의 차원에서 그 사회를 역동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며 대안적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었다. 인상적인 순간은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는데, 5회차에서 서로의 언어를 음가를 지닌 소리로 치환해 따라 하는 과정은, 국어와 프랑스어의 언어적 차이를 번역 없이 마주하게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첫걸음은 각자 자신의 사회 내의 위치를 자각하고 그로부터 발화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곧 자신과 현실의 간극 아래 새로운 상상력을 함입하고, 그것을 상호 수용하는 가운데, 일종의 다른 사회를, 개방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마주한다는 점에서 자기 긍정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자기의 취약함으로부터 발화할 수 있으며, 그 지점이 곧 정치적 주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과 사고의 계기를 수여한다는 점, 이는 이 수업이 가진 이상과 이념이 근본적으로 참가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현되도록 만드는 탁월한 지점일 것이다.

에필로그

장애·비장애, 국적, 언어, 감각 등의 차이를 가진 이들이 동등하게 협업하기 위해서는 적응과 탐색의 시간이 반드시 충분하게 수반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공동되게 강조한 것처럼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맺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포용적 창작을 위한 예술 교육에서 과정 중심의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1회차에서는 여러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파악하고, 돌씩 짝을 지어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며 수용하는 대화를 진행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양한 소통과 표현 방식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침묵과 몸의 언어 역시 강력한 소통 방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회차의 '침묵 속 협업'과 3·4회차의 '몸으로 말하기'는 언어가 아니더라도 신체 감각 기반의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특히 신경다양성이나 언어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주체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몸 중심의 예술 교육 접근법이 '비언어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염두에 두었는데, 공간 배치, 순환되는 리더십 등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토대가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반증하듯 참여자들은 '포용성은 큰 제도보다 매 순간의 선택에서 구현된다.'라는 통찰을 공유하기도 했으며,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무엇보다 유연한 운영 방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진행자에게도 역시 끊임없이 진행 과정에서의 성찰적 태도를 요구하는 부분인데, 즉 진행자는 참여자의 리듬과 표현 방식을 민감하게 감각하고 또 조율할 수 있도록 '몸의 민감성'과 '대화적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워크숍은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공동의 상상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는데, 특히 5회차에서 진행된 "외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활동은 참여자 각자의 세계관을 끌어내고 그들의 예술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예술 교육에서는 완결보다는 열린 서사와 질문을 열어두는 방식이 창의성을 자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워크숍형 예술 교육을 진행할 시, 실험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고, 정형화된 평가보다는, 참여자의 개별적인 변화를 감각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프로젝트 LAB | 장애 · 비장애 공동창작 프로젝트

「VV 수어 스토리텔링 공동창작 워크숍」

※2024년도 연속 프로그램

과정소개

- 진행:** 수어민들레
대상: 수어문학 및 VV(Visual Vernacular)에 관심이 있는 농인·청인 예술인
 ※ 청인의 경우, 수어 소통이 가능하거나 시각언어로서의 수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갖춘 사람
일정: 2025년 9월 2일(화)~9월 20일(토) * 총 10회차
 수어 워크숍
 Part 1 기본과정: 9월 2일(화), 9월 4일(목), 9월 5일(금)
 Part 2 창작과정: 9월 8일(월)~9월 12일(금)
 셋업 및 리허설: 9월 19일(금), 9월 20일(토)
 쇼케이스: 9월 20일(토)
장소: 이음센터 커뮤니티2, 이음센터 이음홀

본 과정은 수어라는 언어의 고유한 표현성과 문학적 가능성을 예술적 형태로 탐구하고자 기획된 창작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어문학의 핵심인 시각언어 기반의 표현 형식, 특히 VV (Visual Vernacular, 시각적 토착문학)를 중심으로, 수어문학의 이론과 실재를 균형 있게 배워보는 데 초점을 둔다. 수어문학의 개념과 역사, 국내외 사례를 통해 수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독자적 문학 언어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한편, VV의 이론 및 창작 기법 교육을 통해 수어 표현의 예술적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농인과 청인이 함께 참여하고 협업함으로써 상호 문화적 이해를 확대하고, 무대 공연이라는 공동의 결과물을 향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진행 | 수어민들레

수어민들레는 2015년 '한국수어 문학'의 본질을 탐구하고,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예술적 매체로 승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수어민들레는 수어문학의 예술성과 문학적 기법을 국내외에 알리고, 농인과 비농인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 공간을 확장하는 데 주력해 왔다. 또한, 국내에서 수어시와 수어문학을 창작하는 예술가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수어문학가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워크숍을 통해 수어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여강사

수어민들레: 변강석(수어민들레 대표, 농인 문학 연구자·창작자), 손 청(수어민들레 팀장)
해외 초청: 에르완 시프라(Erwan Cifra-VV 작가, 수어 예술 교육자),
비쉐페이(Bi Xue Fei-수어 예술가, 수어 교사)

참여자

경이슬, 권오현, 김우경, 변상문, 손창환, 송태연, 신명혜, 이미선, 이소별, 이수영, 이이나,
이현정, 장세호, 장햇살, 정성민, 천진화(중국), Elaine Teo(싱가폴), Lily Goh(싱가폴)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1	9.2. 오전 10시 ~ 오후 5시	수어문학의 이해 및 VV의 기초 이론	-수어문학 이론: 수어문학의 역사 및 유형 예시 -VV 기초 이론: VV의 의미 및 역사 이론 -VV 특징 이론: 분류사의 이론(신체, 취급, 개체)을 배운 후 각 분류사의 예시 제공 -VV 표현 훈련 및 발표 · 각자 창작한 이야기를 토대로 발표 · 3개의 분류사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고 피드백하기
2	9.4. 오전 10시 ~ 오후 5시	수어문학의 이해	- 수어문학이란? - 수어시의 이해 · 수어의 요소: 수형(손과 손가락의 모양), 위치, 움직임, 장향(손바닥의 방향), 비수지(얼굴 표정과 몸의 움직임) 등 · 분류사의 이용 - 수어시와 스토리텔링 - 수어 VV의 활용기법
3	9.5. 오전 10시 ~ 오후 5시		- 수어시 창작의 실제 - 표현 훈련 및 발표 · 의인화 · 역할 전환 · 플래시백 · 슬로우모션 · 수어표현 기법을 활용
4	9.8 오전 10시 ~ 오후 5시	프랑스 및 중국 VV란?	- VV의 의미: 자연적·토착적 언어, 내면화되어 있는, 체화되어 있는, 자연스럽게 습득된 문화 - VV의 기본 요소: 다섯 가지 수어소(수형·수위·수동·수향·비수지) - VV의 기준 · 수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 · 마임과 수어의 요소가 결합 · 스토리텔링 · 시각효과(visual effect) - VV의 비수지 강화하기: 비수지와 움직임을 결합하여 표현 - VV의 여러 도형과 그림의 몸짓 표현

회차	일시	과정명	과정 내용
5	9.9. 오전 10시 ~ 오후 5시	VV창작의 실제	- VV 훈련을 통해 집중력·안정감 쌓기: 숫자 1~5에 대응하는 동물 움직임을 가정하고, 상대방이 불러주는 숫자에 맞춰 즉각 반응하기 - VV의 표현 · 분류사 활용 · 의인화 · 수어소 중 수형의 창의성 활용: 중국에는 170개의 수형이 있음(한국 수어는 30개만 존재) · 비수지 표현
6	9.10. 오전 10시 ~ 오후 5시		- VV의 기본 요소 중 시각 기법 ‘리듬’ · 간단한 4박자 스텝 연습을 통한 리듬감 훈련 · 박자마다 수어 요소 추가 · 장면 전환: 사진을 보고 2가지 요소를 교대로 표현 · 시각적 악보를 그려 VV를 표현함 - VV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요소: 수형·비수지·시선·움직임·박자·묘사·시각효과
7	9.11. 오전 10시 ~ 오후 5시	공연의 실제	- 보이지 않는 감각 훈련: 원형의 대열에서 하나의 방향을 따라, 옆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 - 영화 기법을 VV에 적용하기: 프레임, 줌, 롱 숏, 클로즈업, 시퀀스 등 - 참여자 선정 주제 관련 작품 피드백
8	9.12. 오전 10시 ~ 오후 5시		- VV 기법의 종류 · 구체적 묘사, 이야기 · 신체적 표현(유연성, 마임, 리듬) · 시각 효과 · 촬영 및 편집 - VV의 효과 · VV 표현 기법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한 표현 가능 ·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음
9	9.19. 오후 1시 ~ 오후 5시	리허설 및 쇼케이스	- 보이지 않는 감각 훈련: 원형의 대열에서 하나의 방향을 따라, 옆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 - 영화 기법을 VV에 적용하기: 프레임, 줌, 롱 숏, 클로즈업, 시퀀스 등 - 참여자 선정 주제 관련 작품 피드백
10	9.20. 오전 12시 ~ 오후 6시		- VV 기법의 종류 · 구체적 묘사, 이야기 · 신체적 표현(유연성, 마임, 리듬) · 시각 효과 · 촬영 및 편집 - VV의 효과 · VV 표현 기법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한 표현 가능 ·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음



에르완 시프라, 비쉴 페이 강사와 진행중인 수업의 장면



쇼케이스 공연 이후 커튼콜 장면

주요 워크숍 내용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

- 농인, 청인, 시청각장애, 그리고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참여자까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교류의 경험을 축적

수어문학의 독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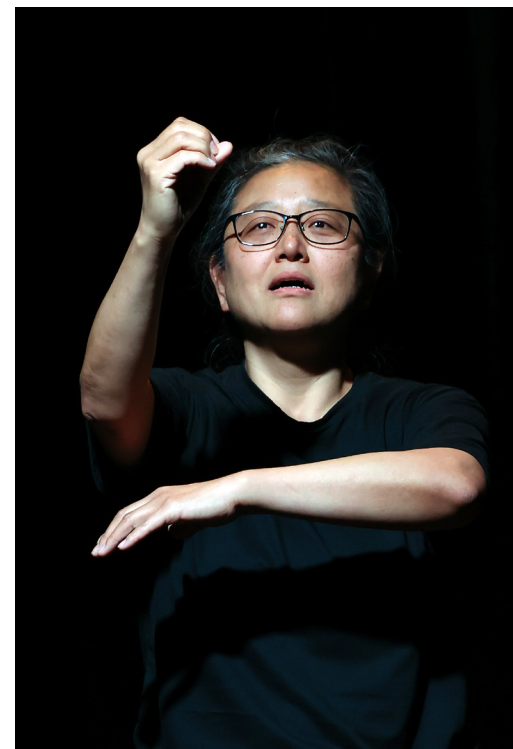
- 수어문학의 개념과 역사, 국내외 사례를 통해 수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독자적 문학 언어임을 이해
- 수어문학은 농인·수어인에 의해 고안된 시각예술이자 삶에서 얻는 감정들과 통찰을 표현하고자 하는 생동적인 문학으로, 정적인 문자문학과는 대조적으로 시각언어인 수어를 갖고 표현하며 감상할 수 있는 장르임
- 수어문학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구비문학의 한 종류로서, 농인의 언어와 세계관을 보여주고, 농인 문화에서 개인 경험 및 감정 표현 등을 나타낼 수 있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님
-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각적 예술 형태로, 몸 전체를 사용한 강력하고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음

수어 VV의 예술적 가능성 이해

- VV는 단순히 수어문학의 한 장르만이 아니라, 시각의 본질을 포착하는 시각적 기법·기술이자 농인 문화와 긴밀한 관련이 있음
- 다양한 형태의 수어표현(마임, 영상적 기법, 수어문법 활용 등)을 통해 수어시, 이야기, 노래 등 다양한 장르를 구성할 수 있음
- 농인 예술가는 영화적·영상적 스타일을 사용한 이야기 기술을 통해 여러 시점을 동시적이고 입체적으로 구현 가능함

VV의 다양한 기법 훈련

- 수어의 개별 요소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중 수형을 통한 간단한 수어 이야기를 만드는 표현 훈련을 하거나 비수지 표현만을 사용해 중점적으로 훈련하기
- VV에서 분류사를 배우고, 각각의 분류사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각자 찾고 피드백
- 영화 기법을 VV에 적용해, 시점, 단위, 배경과 인물의 조화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달 기제 강화



[돌봄] 권오현



[월] 김미림



[DEAF ZOO] 김우경



[연극이 끝나고] 변상문



[농인맹인] 손창환



[오디즘] 손청



[쓰는 하루] 허란



[8.15] 신명혜



[구름과 작은 배] 이수영

전문가 리뷰

대한민국의 공용어이자 시각언어인 한국수어가 그동안 의사소통의 기능만 조명되어 왔다면, 수어문학을 통해, 한국수어의 시각적 운율과 심미성을 극대화한 예술 장르로서, 한국수어의 문학적 기능이 조명받기에 이르렀다. 본래 모든 언어는 문학을 내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것이 다소 늦었음에도, 다행히 수어민들 레의 끈질긴 노력이 2년간의 결실을 보고 있다. 참여자들의 예술적 열망과 진정성과 함께, 전년도보다 더 좋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던 점이 눈에 띈다.

시각적 토착문학은 수어의 생산적 여취를 중심으로 개체 분류사뿐만 아니라 취급 분류사도 많이 사용되는데, 가령 취급 분류사가 많이 사용될수록 마임적 요소가 강해지고 언어로서의 수어의 느낌이 줄어든다. 반면, 이러한 마임적 요소가 많이 쓰이면 관객은 작품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수어에 기반한 예술적 측면이 축소되는 한계가 있다. 올해는 마임적 요소보다는 수어문학적 요소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취급 분류사를 절제한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어 VV의 진면목을 한층 더 잘 보여주며, 고차원적인 시각적 즐거움과 심미성, 그리고 상상력과 감흥을 선사했다고 보인다. 또한 자서전적인 작품, 한 편의 시가 된 작품, 농인의 손과 얼굴을 통해 그려지는 이야기들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에필로그

한국수어는 2016년 2월 3일 「한국수어언어법」 제정 이후,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며 제도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농인들의 언어로서 한국수어는 수어문학이라는 유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지님에도, 그 역사와 교육적 기반은 아직 짧고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워크숍은 농인과 수어 사용자들에게 언어적 자존감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농인이 자신의 언어로 존중받으며 창작 활동을 펼치는 경험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인간 본연의 예술적 욕구를 실현하는 시간으로, 농인, 청인, 농맹인, 중국, 싱가포르 참여자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이 함께 공연을 준비하면서 공동의 성취감과 함께 교류의 가치 역시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 VV의 기틀을 세운 에르완 시프라의 강연과 중국 수어 VV의 권위자인 비쉐페이의 강연은, 농인 특유의 예술 장르인 VV를 심층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된 동시에, 한국수어 VV의 본질을 질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워크숍은 참여자들이 VV라는 아직 낯선 장르를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직접 탐색하고 창작을 시도하는 시간이었으나 새로운 예술 형식을 충분히 소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시간의 한계를 체감하기도 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수어와 농인예술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농인 및 수어 사용자들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향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5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발행일 2026. 1.

발행인 방귀희

발행처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기획/운영 김선형, 허유진, 김수정, 김가영

공동기획/운영 ㈜블루버드씨

표지 디자인 파이카

내지 디자인 이미지 작업장

편집 김민관

사진 엘리스미디어

인쇄 에이프린트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dac.or.kr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ac.ieum.or.kr

이:음 온라인 ieum.or.kr

모두예술극장 moduarttheater.or.kr

모두미술공간 moduartspace.or.kr

관련 SNS 채널

인스타그램 @kdac9700 @ieum_academy

페이스북 @ieumcenter

네이버 블로그 @kdac9700

유튜브 채널 @kdac9700

* 본 자료집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인용 시 저작자와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자료집

